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영자신문을 활용한 중학교
영어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吳 敬 順

2013年 8月

영자신문을 활용한 중학교 영어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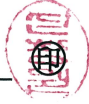
指導教授 金 鍾 勳


吳 敬 順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년 6월

吳敬順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신 창원 

委 員 송 일상 

委 員 김 종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3년 8월

<국문초록>

영자신문을 활용한 중학교 영어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연구

吳 敬 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인터넷 등 문자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자도입을 1학기 앞당겼다. 따라서 본 연구는 EFL 환경 속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가 영어 읽기능력과 영어 쓰기능력 향상 및 학습자의 영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에 소재한 J중학교 3학년 2개 학급 56명을 대상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설정하였다.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쓰기 후 읽기활동>, <쓰면서 읽기활동>, <읽기 후 쓰기활동> 등 총 16차시 수업을 실험반에 적용하였다. 실험 수업 전, 후에 각각 1차례씩 읽기평가와 쓰기평가를 실시하여 검증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에 면담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전, 후에 실시한 읽기평가 평균점수를 통하여 읽기능력 향상정도를 살펴본 결과 실험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비교반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둘째, 쓰기평가 평균점수 비교분석에서도 실험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비교반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실험반에서 쓰기평가의 4항목 내용, 구성, 문법, 어휘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어휘영역의 향상도

* 본 논문은 201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가 가장 높게 났으며, 문법영역에서 다소 낮은 향상을 보였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에서 쓰기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익숙해진데서 오는 결과로 보이며, 또한 영자신문을 읽으면서 어휘와 내용적인 요소 등 읽기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문법적 요소를 많이 다루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는 읽기와 쓰기능능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은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학습의지 등 영어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모든 설문문항 중에서 제일 낮은 평균값을 보였던 영어 쓰기에 대한 사전 자신감이 사후에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수업 안에서 쓰기활동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많이 부여하면서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읽기와 쓰기의 문자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흥미로운 읽기자료들 그들의 눈높이에서 선정하고, 통합적인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욕구를 고취시키며 스스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쓰기에 대한 개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쓰기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짜임새 있게 표현하여 상대에게 의도하는 바를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사는 영어 쓰기를 지도함에 있어서 문장단위 쓰기에서 벗어나 단락으로 확장시켜 지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차	v
그림 목차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구성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읽기와 쓰기 교육	5
1.1 읽기와 쓰기능력의 상관관계	5
1.2 읽기와 쓰기 통합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10
1.3 읽기와 쓰기 통합 학습모형	12
2. 신문 활용 교육	14
2.1 신문 활용 교육(NIE)의 개념	14
2.2 신문 활용 교육의 특성	16
3. 영자신문 활용 교육	18
3.1 영자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	18
3.2 영자신문 활용 교육의 특성	18
3.3 영어 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한 신문	20
III. 연구의 방법	23
1 연구 참여자 및 기간	23
1.1 연구 참여자	23
1.2 연구기간	25

2 연구절차	26
2.1 영자신문의 선정	26
2.2 평가도구 및 설문지	31
2.2.1 읽기 영역	31
2.2.2 쓰기 영역	32
2.2.3 정의적 영역	34
3 수업의 설계와 실제	35
3.1 수업의 설계	35
3.2 수업의 실제	39
3.2.1 학습자	39
3.2.2 교사	39
3.2.3 수업절차	40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8
1. 영어 읽기능력의 변화	48
2. 영어 쓰기능력의 변화	50
3.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의 효과	53
4. 정의적 영역 변화	54
4.1 영어읽기에 대한 정의적 영역 변화	56
4.2 영어쓰기에 대한 정의적 영역 변화	60
4.3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 변화	63
5. 논의	66
V. 결론 및 제언	71
1. 결론	72
2. 제언	73
참 고 문 헌	75
ABSTRACT	78

표 목차

<표 1> 읽기와 쓰기 인지과정의 유사성(김혜정, 2004 : 52)	9
<표 2> 교과서와 신문의 정보비교 (최상희, 2003 : 64)	17
<표 3> 실험대상 학생의 기본 정보	24
<표 4> 연구기간 및 내용	25
<표 5> 사전-사후 읽기 능력 검사지 문항 구성	30
<표 6> 영어 쓰기능력검사지 채점 기준표	32
<표 7> 사전-사후 설문지 문항 구성	33
<표 8> The Kids Times의 구성	34
<표 9> 연구에 활용한 신문기사	36
<표 10>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수업모형	37
<표 11> 차시별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활동	38
<표 12> 3차시 수업계획안(쓰기 후 읽기 활동)	42
<표 13> 8차시 수업 계획안(쓰면서 읽기 활동)	44
<표 14> 12차시 수업 계획안(읽기 후 쓰기 활동)	46
<표 15> 사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48
<표 16> 사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49
<표 17> 실험반 사전-사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49
<표 18> 비교반 사전-사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50
<표 19> 사전 쓰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50
<표 20> 사후 쓰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51
<표 21> 실험반 사전-사후 쓰기 능력 평가 t-검정결과	51
<표 22> 비교반 사전-사후 쓰기 능력 평가 t-검정결과	52
<표 23> 실험반 사전-사후 쓰기 영역별 t-검정 결과	52
<표 24>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의 상관관계	53
<표 25> 영어읽기에 대한 흥미도	56
<표 26>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	57

<표 27> 자기주도적인 읽기 학습태도	58
<표 28> 다양한 자료가 읽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59
<표 29>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도	60
<표 30>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	61
<표 31> 자기주도적인 쓰기 학습태도	62
<표 32> 다양한 영어 읽기자료가 쓰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63
<표 33>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학습 흥미도	64
<표 34> 영자신문 활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65
<표 35> 영자신문 활용 학습의향	66

그림 목차

<그림 1> 영어읽기에 대한 흥미도(%)	56
<그림 2>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	57
<그림 3> 자기주도적인 읽기 학습태도(%)	58
<그림 4> 다양한 자료가 읽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59
<그림 5>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도(%)	60
<그림 6>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	61
<그림 7> 자기주도적인 쓰기 학습태도(%)	62
<그림 8> 다양한 읽기자료가 쓰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63
<그림 9>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학습 흥미도(%)	64
<그림 10> 영자신문 활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65
<그림 11> 영자신문 활용 학습의향(%)	6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정보가 인터넷, 학술지 및 심지어 SNS까지도 문자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쓴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의사를 문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쓰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수업에 있어서는 선다형으로 치러지는 시험형태로 인해 의사소통의 4가지 기능 중 듣기와 읽기의 기능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읽기를 위해 사용되는 읽기자료마저도 시험과 관련하여 맥락이 배제된 단편적인 읽기자료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며, 그로 인해 학습자들의 추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같은 고등사고능력을 키워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의사소통기능 중 표현능력인 말하기 능력과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말하기와 쓰기평가가 포함된 국가영어능력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이하 NEAT라 약함)시행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가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술형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영어공인어학시험에서도 반영되어 대표적인 영어공인어학시험인 TOEFL과 TOEIC에서도 언어의 4기능을 모두 평가하고 있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시험을 비롯하여 영어공인어학시험에 이르기까지 읽기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읽

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함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해 읽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을 통한 문자 언어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두 의사소통능력과는 달리 문자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더욱이 외국어로 자기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자를 활용한 쓰기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읽기학습이 선행되어야한다. 즉 표현능력인 쓰기학습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읽기를 통한 기본 어휘, 표현 및 문화에 충분한 노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자신문은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 속에서 영어를 배워야하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빠른 정보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매우 유용한 학습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자신문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authentic English)로 쓰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영어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읽기 및 쓰기 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자신문은 영어를 매개로 영어권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영어사용 국가와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영어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영어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여 세계인들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데 있으므로 영어교사로서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목표

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교육이 영어의 4가지 기능 신장과 문화이해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탐구에 많이 치우쳐 있다. 일부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영자신문의 활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중학교 학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영어의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FL 환경 속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가 영어 읽기능력과 영어 쓰기능력 향상 및 학습자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1.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인 읽기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 시키는가?
2.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인 쓰기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 시키는가?
3.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3. 연구의 구성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간의 상관관계,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 모형 및 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 신문 활용 교육의 특성, 영자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 영자신문 활용 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영자신문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대상, 연구기간 및 읽기영역, 쓰기영역,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졌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를 한다. 첫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수업이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 읽기평가를 실시하여 실험반의 사전-사후 및 비교반의 사전-사후의 읽기평가점수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수업이 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사후 쓰기평가 통해 살펴본다. 셋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수업에서 보이는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상호간의 영향을 살펴본다. 넷째, 사전-사후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사후 학습자들의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서 변화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읽기와 쓰기 통합수업이 영어 읽기능력 및 쓰기능력 향상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와 실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제언을 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에게 그 연구 결과를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영자신문 활용이 읽기능력 및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어구사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Ⅱ. 이론적 배경

1. 읽기와 쓰기 교육

언어는 사회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언어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되며, 언어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의 경우에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듣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해기능에 해당되고, 말하기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기능에 해당한다.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문자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읽기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받아들이는 이해기능에 해당되고, 쓰기는 자신의 의사를 글로 나타내는 표현기능에 해당된다. 이러한 언어의 4가지 영역 중에서 특히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특정한 학습과정이 요구된다.

1.1 읽기와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그 사용 측면에서 각각 분명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한철우 외, 2001 : 148). 음성언어를 매개로 하는 듣기와 말하기는 음성언어 행위를 하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적이고 공유된 맥락 안에서 서로 마주 대하거나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가 전개되는 상호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즉 음성언어 외에, 몸짓이나 얼굴 표정, 억양과 목소리 톤과 같은 언어 외적 요소가 가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과 장소를 지칭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상물을 사용하여 개략적인 언급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반면에 문자언어를 매개로 하는 읽기와 쓰기는 독자와 필자간의 상호작용이 직접 이루어질 수 없고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방향적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읽기란 독

자가 문자화된 글을 읽고 문장구조와 문장이 연결되는 방법을 통해 텍스트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와 화자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에서처럼 반복하고 취소하고 덧붙여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쓰기 또한 필자가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으로 필자와 독자 간에 아무런 상호작용과 피드백 없이 필자가 대화의 전 과정을 혼자 이끌어 가야한다. 이에 대해 Rivers(1981 : 291-92)는 쓰기란 허공에다 의사 전달을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눈으로 독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적절한 문장구조 및 문장 간의 배열이나 어휘 선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법을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문자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읽기와 쓰기는 독자와 필자간의 상호작용이지만 독자와 필자 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전달에 있어 논리적이고 체계성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하게 김진선(2003 : 13)은 글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의미의 생산 및 이해과정이라 했다. 읽기와 쓰기는 독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구성하여 글을 생산하는 필자와 필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구성하여 글을 이해하는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과정으로 보았다. 독자는 자신의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글을 읽고 필자의 글을 쓴 목적과 대상을 이해하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독자의 입장에 있던 학습자가 필자가 되어 글쓰기를 할 때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이 신장되어 글을 쓸 때 더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방법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게 된다고 했다.

읽기와 쓰기 두 영역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순서에 대해 Shanahan & Lomax(1986)는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읽기와 쓰기가 양방향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 읽기지식이 쓰기 능력 발달에 본질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읽기에서 쓰기 모형(reading-to-writing model), 그리고 쓰기가 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쓰기에서 읽기 모형(writing-to-reading model)이다. 이 3가지 관점에서 두 기능의 연계지도의 효과성을 실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읽기와 쓰기가 서로에게 영

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면서, 3가지 읽기와 쓰기 능력 관계 모형 중 읽기와 쓰기의 상호작용 모형이 읽기와 쓰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읽기와 쓰기의 상호작용 모형은 읽기가 쓰기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쓰기가 읽기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입장에서는 읽기와 쓰기 모두 하위에서 상위 수준으로 발달하는데 우선적으로 읽기의 각 요소가 쓰기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쓰기의 각 요소가 읽기의 상위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읽기의 단어 분석과 같은 요소는 쓰기의 철자 지식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이러한 쓰기 지식은 어휘 지식과 같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읽기 지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Ferris & Hedgcodk(1998)가 방향성을 기준으로 3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이종희, 2012 : 10, 재인용). 첫째, 방향성 가설(directional hypotheses)은 입력(input)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쓰기 능력의 출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읽기능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쓰기능력 계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읽기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비방향성 가설(nondirectional hypothesis)은 읽기와 쓰기의 기저에는 공통적인 기초과정(common underlying processes)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이 입장에서는 읽기와 쓰기 모두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양방향성 가설(bidirectional hypothesis)은 읽기능력의 향상이 쓰기기술을 강화하고, 또한 쓰기능력의 향상이 읽기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가설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관계는 학습자의 문자 인식의 정도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자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인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을 강조되는 이유는 읽기와 쓰기가 비슷한 사고과정을 거쳐 의미를 재구성해가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거치는 고등사고기능을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선(2003 : 14-15)은 읽기와 쓰기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첫째, 읽기와 쓰기는 어휘, 세계에 대한 지식, 개념 등 모두 비슷한 유형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를 통해서 배운 지식은 쓰기에 전이되고 쓰기를 통해 배운 지식은 읽기에 전이된다. 둘째, 읽기와 쓰기는 모두 의미 생성의 과정이다. 독자와 필자의 언어적 지식, 배경 경험, 상황 등

은 글을 읽고 쓰는 과정 즉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읽기와 쓰기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읽기와 쓰기는 모두 사고 작용 행위이다. 읽기와 쓰기는 모두 고도의 사고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읽기를 통해 사고력이 길러지면 쓰기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 될 수 있다.

김혜정(2004)도 읽기는 필자가 문자언어를 통해 쓴 글을 독자가 읽고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며, 쓰기는 필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서 독자를 상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문자언어로 글을 생산해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서 읽기와 쓰기의 각 단계별 인지과정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읽기와 쓰기 인지과정의 유사성(김혜정, 2004 : 52)

단 계	읽 기	쓰 기
계획단계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목적에 따라 읽기 계획 수립 - 텍스트 및 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목적에 따른 쓰기 계획 수립 - 필자의 장기 지식, 작문 과제 환경에 대해 생각함
구성단계 (comp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의 목적과 배경지식에 의존하여, 텍스트에 주어진 단서를 이용하여 의미 구성(읽기시작) - 주제나 플롯에 대해 갈수록 일반적인 아이디어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자의 목적과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의미 구성(쓰기시작) - 주제나 플롯에 대해 갈수록 일반적인 개요 수준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함.
편집단계 (edit)	- 되새겨 읽기, 의미 수정	(쓴 것을) 되새겨 읽기, 고쳐쓰기(reread/reflect/revise)
조정단계 (monitor)	- 가장 적절한 의미를 최종적으로 선택(finalizing)	-가장 적절한 의미를 최종적으로 쓰기(finalizing)

위 표에 따르면 문자언어를 매개로 하는 읽기와 쓰기는 계획단계, 구성단계, 편집단계,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매우 유사한 인지 과정을 통해 글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사고과정을 통해 독자와 필자 모두 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고도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영역의 깊은 관련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와 듣기 간의 연관성에 비해 읽기와 쓰기는 서로 더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복잡한 지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읽기와 쓰기는 글 내용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필자와 독자의 사전 지식, 목적, 기능 등의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읽기와 쓰기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읽기와 쓰기는 교육적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며 두

영역 간에 상호의존적이다. 즉 읽기활동은 학습자의 지식 습득을 돕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자극한다. 학습자들은 읽기를 통해 쓰고자 하는 어휘와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읽기 또한 쓰기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철자나 구문 및 구두점에 관한 지식은 읽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Kenneth & Goodman(1983)은 읽기를 통해 읽기를 배우고, 쓰기를 통해 쓰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읽기를 통해 쓰기를 배우기도 하고, 쓰기를 통해 읽기를 배우기도 한다면서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Tierney & Pearson (1983)도 읽기는 쓰기의 책략되고, 쓰기는 읽기의 책략이 되는 것으로 읽기와 쓰기 모두가 다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작문과정인 동시에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읽기와 쓰기는 서로 상호관련성이 깊으며,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은 쓰기에 영향을 미치고 쓰기를 통해 얻은 지식은 역시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 방법을 통해 자신의 표현방법을 익히고 습득해 갈 수 있다. 또한 많이 읽을수록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읽기과정과 쓰기과정 사이에 정확하게 일대 일의 대응을 맺지는 못하지만 이 둘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하게 되며, 읽기와 쓰기의 사고능력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상호 지지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영어 학습지도에서도 학습상황에 따라 읽기와 쓰기학습을 통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 읽기와 쓰기 통합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서로의 능력향상을 도와준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 두 영역을 서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마도 현재까지의 교육상황이 시험위주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고, 쓰기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작아서 실제 영어 수업에서 쓰기 교육을 심도 있게 다룰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NEAT나 TOEIC를 비롯한 영어능력인증평가 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평가에서도 일정 비율이상의 서술형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영어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

어 쓰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통합적 언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언어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신헌재와 이재승(199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이종덕, 2007, 13-14, 재인용). 첫째, 언어의 4가지 기능은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없고, 각 기능은 여러모로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언어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 증진된다. 언어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기능을 지도할 때에도 실제적인 삶과 연결하여 이루어져야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언어지식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기능의 집합이다. 언어 학습은 언어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용 능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Gunning(2005)은 어린이들의 경우 읽기가 쓰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이미지, 2010, 24-25, 재인용). 첫째, 어린이들은 읽기를 통해 친숙한 글의 형식을 적절한 자신의 쓰기 양식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어린이들은 읽기 활동을 통해 문체를 배울 수 있다. 자신이 읽은 문체를 모방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여 이를 기초로 새롭고 독창적인 글을 쓰게 된다. 셋째, 책과 신문 기사는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써 모델이 되는 형식을 제공한다. 넷째, 읽기는 쓰기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어린이들은 읽기를 통해 쓰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를 비롯한 초급상태의 학습자들에게 읽기가 영어 글쓰기의 기초를 이루며 읽기를 통해서 필자가 사용하는 글 쓰기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글을 써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Calkins(1983)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이 읽기기능과 쓰기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쓰기능력이 향상되면서 다른 언어능력도 함께 신장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종덕, 2007, 14, 재인용). 그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중 2일간은 읽기통합수업을 실시하고 3일간은 쓰기활동을 지도하였다. 쓰기는 계획단계, 초안작성단계, 수정단계, 편집단계, 최종안 작성단계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각 단계를 밟아나갈 때마다 학생들은 서로 상의하면서 쓰기를 도와주었다. 이러한 수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에서보다 더 많은 쓰기활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쓰기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다른 언어능력도 전통적인 수업방식보다 더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김진선(2003)은 중학교 3학년 1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주간의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지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는 학생들의 언어사용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단순히 읽기와 쓰기의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언어능력의 전반적인 신장으로 확대됨은 물론 정의적 면에서도 매우 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읽기와 쓰기는 별개로 지도되기 보다는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종덕(2007)은 중학교 2학년 영어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협동적인 읽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이 영어 학습부진아의 독해능력 및 독해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협동적인 읽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이 영어 학습부진아의 영어 독해력과 독해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미지(2010)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자신문을 수업에 투입하여 초등영어 읽기와 쓰기 연계지도효과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읽기와 쓰기의 연계지도가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문체나 글의 구성을 알게 되면 글을 쓸 때 좋은 글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에 노출되면 자신이 접했던 글의 형식이나 표현, 어휘 등을 다시 사용해 봄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고 글의 구성과 기능을 배울 수 있어 글쓰기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1.3 읽기와 쓰기 통합 학습모형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을 살펴보면 언어의 4기능들이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즉 학습자는 읽기를 통해서 읽기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읽기와 함께 쓰기를 배울 수 있고, 쓰기를 통해서 쓰기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쓰기를 통해서 읽기를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읽기와 쓰기를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언어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가르치려는 교수·학습모형은 꾸준히 개발되고 제시되고 있다. 김학상(1999 : 53)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학습의 유형을 다루면서 쓰기 활동을 먼저 한 후 읽기 활동을 하는 <쓰기 후 읽기 모형>, 쓰기 활동을 하면서 읽기 활동을 하는 <쓰면서 읽기 모형> 읽기 활동을 먼저 한 후 쓰기 활동을 하는 <읽기 후 쓰기 모형>, 읽기 활동을 하면서 쓰기 활동을 하는 <읽으면서 쓰는 모형> 등을 제시했다.

<쓰기 후 읽기 모형>은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이나 차례, 삽화, 사진, 글의 앞부분 또는 전체를 얼핏 보고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질문하기 등의 쓰기 활동을 한 후에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쓰기 활동을 한 후 읽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은 글을 읽는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게 되며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어 글의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해석하고 추론하면서 의미를 재구성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읽기능력의 제고를 위해 쓰기 과정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쓰면서 읽기 모형>은 제시된 글의 각 단락별 핵심어들을 순서대로 그리거나 각 단락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문자해독에서 시작하여 문장 단위를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모아서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순서도 그리거나 내용요약과 같은 쓰기는 읽기를 돈독히 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글의 이해는 다시 독자에게 작용하면서 읽기와 쓰기 두 측면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 즉 쓰기 절차를 수행하면서 읽기의 원리와 절차를 익혀나가게 된다. <읽기 후 쓰기 모형>은 제시된 글을 읽은 후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그 글에 대한 독후감을 쓰거나 내용을 소개하기, 읽은 글을 모방하여 써 보거나, 더 나아가 다른 장르로 바꾸어 써 보기 등의 활동이 있다. 즉 정확한 읽기를 통하여 이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지적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읽기내용을 쓰기 자료로 삼기이전에 쓰기 활동을 통해 정확한 읽기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 쓰기 과정에서 읽은 내용을 재확인하고 심화지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읽기 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다른 내용의 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다른 글, 동일한 주제를 가진 다른 글 등을 쓰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읽으면서 쓰기 모형>은 주어진 글의 일부를 읽거나 다른 학생이 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써 가나는 것이다. 즉 한 학생이 처음 부분을 쓰면 다른 학생은 처음 부분을 읽고 이어서 중간 부분을 쓰고 또 다른 학생은 처음과 중간 부분을 읽고 이어서 끝 부분을 써서 한 편의 글이 완성되도록 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 모형을 가지고 쓰기활동을 지도할 할 때에는 글의 일반적 구성 원리인 단계성, 통일성, 응집성, 강조성을 지닌 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 모형과 관련된 다른 학습모형에는 김진선(2003 : 19-20)이 제시한 <요약하여 쓰기>, <평가하기>, <다른 장르로 바꾸어 보기> 등이 있다. <요약하여 쓰기>는 어떤 글을 읽고 난 후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는 방법으로, 글을 읽은 후 구두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지만, 글로 써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가하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을 통해, 주어진 글을 비판적으로 읽게 되고 더 나아가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른 장르로 바꾸어 보기>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다른 형태의 글로 바꾸어 써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편의 이야기를 읽고 이것을 시의 형태로 바꾸어 써보기, 안내 글을 읽고 대화의 글로 써보기, 편지글을 설명문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신문 활용 교육

2.1 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

신문 활용 교육(NIE)은 Newspaper In Educat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으로 신문을 학습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일컫는 용어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The New York Times가 신문을 학교교실에 정기적으로 배포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55년 아이와주의 일간지인 The Moines Regist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고등학생 40%가 교실 밖에서는 전혀 문자를 접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자기

피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미국교육협회와 미국신문발행인협회(ANPA) 공동으로 NIE의 전신인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을 실시하면서 미국 전역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신문을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기업체 등 다른 시설이나 기관교육에도 폭넓게 활용하던 캐나다신문발행인협회가 NIE란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냈고 1976년 미국신문발행인협회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NIC가 NIE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NIE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80년대 후반부터는 영국, 독일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NIE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세계신문협회(WAN)에 따르면 2002년에는 52개국에서 NIE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1997년 조사 때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한국에서는 1994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학교 교육에 NIE를 도입할 것을 발의하고 한국언론협회가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NIE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허병두(1997)는 NIE를 신문을 가르치고 신문으로 가르치자는 교육적 시도라고 하면서,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과 친숙하게 하고 학생의 사고력 및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즉 살아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활용하여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매체로서의 특징을 살려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상희(1999)는 NIE를 학교수업에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수법이자 신문과 교육의 동반자적 신산학 협동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한진숙(2004 : 4)은 NIE를 우리 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에 유용한 보조 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해보면 NIE란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이 실리는 살아있는 학습 자료인 신문을 교수학습에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높이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2 신문 활용 교육의 특성

제 7차 중학교 외국어(영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중심의 영어교육,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교육, 활동과 과업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초점을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인 학생에게 두는 교육을 말한다. 교과서 진도를 나갔다고 해서 수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통해 각자의 성장에 유의미한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즉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교과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이 되어야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기존의 자신의 지식에 수업시간에 배운 새로운 지식을 전이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줘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N세대(Net Generation)라고 불려진다. 학생들은 인터넷에 익숙하고, 교과서 외에 다양한 학습 자료, 잡지, 신문 등의 홍수 속에서 자라고 있는 세대이다. 그리고 교과서와 같은 책형태의 자료보다는 TV, 휴대폰, 인터넷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학교의 교과교육에서도 이러한 학생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학습자료 중의 하나가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 자료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과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더 쉽게 끌 수 있다. 최상희(2003 : 64)는 교과서와 신문의 정보 특성을 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표 2> 교과서와 신문의 정보비교 (최상희, 2003 : 64)

교과서	신문
주기 1년	주기 반일
일관성	일과성
계획적	돌발적
오류가 없음을 전제	오류가 없음을 부정
필요 최소한 내용	필요 최대한의 내용
비정서적	정서적
거의 낡은 정보	최신 정보
연속성	토막, 단정
평가 고정	평가 미정
오락성 결여	흥미 중시
정연함	잡다함
국가검정 거침	국가 검정 없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도 국가검정에서 국가인정교과서로 바뀌고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많이 새로워지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가 잘 비교해주고 있듯이 교과서는 1년 동안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내용을 담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을 신속하게 담아내지 못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신문은 이러한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기가 반일이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며 정보의 범위도 일반상식에서 전문상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교과서는 이론과 지식전달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신문은 배운 내용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여 학업에 대한 의욕을 높여줄 수 있다. 구성이 다양하여 읽을거리가 풍부하고, 연예계 소식을 비롯한 흥미위주의 코너가 있어 학습자들에게 쉽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문들은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멀티미디어 매체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갈 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신문을 통해 누구나 매일 쉽고 저렴하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엄청난 속도로 정보가 증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줄 수 있다.

3. 영자신문 활용 교육

3.1 영자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

영자신문 활용 교육은 NIE를 영어학습에 도입하는, 다시 말해 영자신문을 영어 학습에 활용하는 교육이다. 즉 ENIE (English Newspaper In Education)로 영자신문을 영어 학습에 활용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본다면 ENIE는 정규 영어수업,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틈새영어교육 등에 영자신문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즉 영자신문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영어독해력과 영어 작문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개발시키고, 정보 활용능력을 육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2 영자신문 활용 교육의 특성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고 배워야하는 EFL 상황의 학습자들에게 영자신문은 영어 학습 자료로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영자신문을 통하여 영어학습자는 실제로 쓰이는 언어를 접할 수 있고 정확하고 자연스런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예구(2001 : 7-8)는 영자신문이 세계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를 그 표현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실용적인 현대 영어를 사용하므로, 영자신문은 실제로 쓰이는 자연스런 실제 언어(authentic language)를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문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어를 사용하며 최신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어를 전달해준다.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문맥과 상황을 동반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처럼 문법구조나 성분을 설명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Rathbone(1972)에 따르면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는 다

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준다(문유미, 2010 : 25, 재인용). 첫째, 신문영어는 명확하다. 기사를 작성할 때 일반적이고 모호하며 추상적인 설명방식을 지양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실제적인 문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을 줄이고 명사와 동사를 강조하여 사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강도 높게 전하고 문장에 생기와 활력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신문영어는 간결하다. 모든 불필요한 단어나 중복되는 내용 및 반복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문장의 간결함을 꾀한다. 예를 들면 선행하는 문장과 뒤따르는 문장의 주어나 동사가 같은 경우,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이를 흔히 생략한다. Cathy bought a brown bag, Ann blue one.이라는 문장에서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의 동사 모두가 bought임으로 뒤의 문장에서 동사 bought가 생략되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셋째, 신문영어는 능동태를 사용한다. 능동태로 표현되는 영어는 수동형의 문장보다 직접적이고 간결하며 힘이 있다. 대부분의 문장은 간단하고 직접적인 문장형식인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영어 수동태 문장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초급영어학습자들이 영어읽기를 용이하게 하며 어려운 영어문장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감을 덜어준다. 넷째, 신문영어는 일관된 어조를 가지고 있다. 즉 같은 계열의 기사에 대한 일관된 글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독자들이 신문읽기에 익숙해지면 영자신문읽기도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둘째, 영어 학습 자료로서의 영자신문은 다양한 읽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여줄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동기유발은 외국어 학습의 중요한 성공 요인들 중 하나다. 영자신문은 학습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사, 스포츠, 광고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만화, 도표, 그림,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주고 현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주므로 학습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어 학습 자료로서의 영자신문은 학습자들이 영자신문을 통하여 영어권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문화란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특정 집단이 갖는 생각, 관습, 예술 등의 총 집합체로써 그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집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그 언어 사용국의 문화적인 배경을 바르게 알 때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영자신문이 소개하는 세계문화면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도시, 사람, 생활, 음식, 휴일 등을 알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습득하게 된다. Sanderson(2004)은 교실에서 신문을 활용해야 하는 주된 요인으로 신문이 문화적 정보의 제공에 두었다(이미지, 2010 : 12, 재인용).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문은 그 지역의 언어를 통해 문화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과 경험, 지식, 가치 믿음, 감정, 태도 등을 공유함으로써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문은 언어적 요소 외에 그 언어문화권 사람들의 사고 및 행동 양식 등의 문화적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폭넓게 신문을 읽을수록 각 나라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습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황에 맞는 언어를 바르게 구사하게 된다. 영자신문은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매개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상황에 맞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영어 학습 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3 영어 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한 신문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양대 산맥으로서의 영자신문으로는 The Korea Times(<http://www.koreatimes.co.kr>)와 The Korea Herald(<http://www.koreaherald.co.kr>)가 있다. The Korea Times는 1950년에 유엔군에 참전하는 외국 장병들에게 국내외 뉴스를 전달하고 한국의 상황을 올바르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며 The Korea Herald는 1953년에 The Korea Republic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1965년에 The Korea Herald로 그 제호를 바꾸었다. 두 신문은 그동안 국내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소식을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현재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까지 구축하고 있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국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Korea Joongang Daily(<http://joongangdaily.joins.com>)를 발행하

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도 구축되어 있어 그 활용이 용이하다. 그 외로 동아일보 영자신문(<http://english.donga.com>)과 조선일보영자신문(<http://english.chosun.com>)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영자신문들은 영어 어휘력, 영어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 및 영어 독해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발간되는 영자신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The Kids Times(<http://www.kidstimes.net>), The Teen Times(<http://www.teentimes.net>), The Junior Herald(<http://junior.heraldcorp.com>), Junior Edutimes(<http://www.jedutimes.com>) 등이 있다. 모두 주 1회 발행되며,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국내외 시사 뉴스, 사회, 과학, 문화, 인물, 자연, 환경, 스포츠 및 연예인 등을 주제로 기사가 실리고 있고 16면에서 28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된다.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습 자료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일례로 어떤 사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기사를 읽은 후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내용들도 신고 있다. 또한 기사에 따라 이해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포함한 Workbook을 제공하는 신문도 있으며, 전화영어, 논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신문도 있다. 각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문을 접할 수 있고 구독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추천할 만한 영자신문 사이트로는 아래와 같으며, 10번부터 13번에 소개된 사이트는 초·중·고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활용도가 높은 영자신문 사이트들이다.

1. <http://www.koreatimes.co.kr> - 코리아타임즈
2. <http://www.koreaherald.co.kr> - 코리아헤럴드
3. <http://joongangdaily.joins.com> - 코리아중앙데일리
4. <http://english.chosun.com> - 조선일보영자신문
5. <http://english.donga.com> - 동아일보영자신문
6. <http://www.nytimes.com> - 뉴욕타임즈
7. <http://global.nytimes.com>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8. <http://english.etnews.com> - 대한민국 IT전자뉴스
9. <http://www.reuters.com> - 로이터
10. <http://www.kidstimes.net> - The Kids Times
11. <http://www.teentimes.net> - The Teen Times
12. <http://www.jedutimes.com> - Junior Edutimes
13. <http://junior.heraldcorp.com> - The Junior Herald

이러한 다양한 영자 신문들 중에서 학습자의 연령, 학년, 학습자의 관심 및 영어 학습정도에 따라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영어 학습지도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연구의 방법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중학교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로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및 기간

1.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면지역에 소재한 J중학교 3학년 56명으로 본 연구자가 교과담당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 학급은 관찰의 용이성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교과담당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담임반과 이웃 반, 2학급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학부모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지원도가 낮으며, 학생들도 영어에 대한 노출이 미미하여 학교에서 접하는 영어가 영어학습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려는 학습의지가 매우 낮은 편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태도를 사전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실험대상 학생의 기본 정보

질 문	답 변	사 례수 (N=56)	응답비율(%)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매우 낮다	5	8.9
	낮다	8	14.0
	보통이다	21	38.0
	높다	15	27.0
	매우 높다	7	13.0
영어에 대한 자신감	매우 낮다	10	18.0
	낮다	22	39.0
	보통이다	19	34
	높다	5	8.9
	매우 높다	0	0
하루 영어 학습시간	전혀 없음	13	23.2
	0-0.5시간	16	28.6
	0.5-1시간	18	32.1
	1-2시간	9	16.1
	2시간 이상	0	0
학습방법	교과서(자습서)	21	37.5
	문제지	21	37.5
	독해교재	8	14.3
	어휘교재	3	5.4
	기타(인터넷등)	3	5.4

위 설문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는 연구자가 학생들의 학습수준이나 수업태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정도와는 달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고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조금씩이나마 매일 영어공부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지만 학습방법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방과후 수업 및 자기 주도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과제물 수행 등 학교 수업과 관련된 영어 학습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흥미롭고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1.2 연구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이며 구체적인 연구기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기간 및 내용

진행과정	기 간	내 용
연구계획	2012.3 - 2012.4	연구주제 및 방향설정. 연구주제관련 자료 및 문헌 조사
자료수집	2012.5 - 2012.6	사전-사후 설문지 작성 사전 실태파악 실험 자료 선정 및 수집 학습자료 제작 사전 영어읽기 평가 사전 영어쓰기 평가
현장적용	2012.7 - 2012.8	수업실시(7월 2.3주, 8월 3.4주) 사후 영어읽기 평가 사후 영어쓰기 평가
결과분석	2012.9 - 2012.12	지도상의 문제점 보완 결과자료 분석 및 결과 도출
연구정리	2013.1 - 2013.4	연구논문작성 및 연구정리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있어 다른 반과 같은 교과진도를 운영하여 평가를 해야 하며 특히 중학교 3학년은 고입을 앞둔 학생들이어서 성적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실험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실험적용기간은 1학기말 고사가 끝나고 학과운영이 다소 자유로운 시기인 7월 2-3주와 2학기 초인 8월 3-4주로 설정하였으며 4주 동안 총 16차시에 걸쳐 매 차시 45분 수업시간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연구절차

2.1 영자신문의 선정

국내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은 The Korea Times와 The Korea Herald를 비롯하여 다수의 영자신문들이 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이 학교수업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신문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국내 및 국외의 소식을 전해 주며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해도 이런 기사들이 독자의 이해수준을 넘어서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자신문은 학습자의 지적수준과 언어적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어휘력, 영어 문장구조의 이해 정도 및 영문 독해 수준을 고려하여 발행되는 영자신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The Kids Times(<http://www.kidstimes.net>), The Teen Times(<http://www.teentimes.net>), The Junior Herald(<http://junior.heraldcorp.com>), Junior Edutimes (<http://www.jedutimes.com>)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영자신문들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주된 독자층도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자신문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며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은 학습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영자신문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어 학습 자료로 영자신문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한 영어 기사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습자의 영어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위주로 학년에 맞는 한정된 문법을 활용한 교과서 유형의 텍스트에 익숙한 중학생들에게 낯선 고급 어휘나 복잡한 문장구조로 이루어진 영자신문은 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학습 자료로서 영자신문의 기사가 너무 어려우면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물론 기사 읽기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 있고 영어 학습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조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구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영자신문이 발간되고 있고, 동일 신문 내에서도 기자의 취향 및 기사내용에 따라 내

용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를 신중히 선택하여 제시할 때 학습 자료로서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진다.

둘째,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학습내용일수록 학습동기 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앞서 교사 위주의 자료를 선택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읽고 싶은 주제를 먼저 조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자료를 직접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습자들이 신문의 각 면을 살펴 눈에 띄는 기사를 직접 선택하게 하며 학습자들이 선택한 기사를 모아서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선택한 자료이므로 학습하는데 인내심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신문의 일부 기사는 흥미를 강조한 나머지 제목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학습 자료로 알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자신문의 학습 자료가 학습자의 흥미진작과 더불어 교육적으로도 학습자에게 적할 수 있도록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기존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모든 학습이 그렇듯이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시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때 최대의 학습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는 영자신문의 학습 자료가 학습자에게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자료의 내용이 학습자가 새롭게 접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내용과 관련된 보충 자료를 함께 제공하거나 학생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지식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앞서 살펴본 학습 자료로서 영자신문을 선정할 때 유의 사항을 유념하면서 본 연구를 위한 실험 집단의 영어 읽기와 영어 쓰기활동을 위한 수업용 자료로 The Kids Times를 선정하였다. 이 신문은 총 28면으로 되어 있으며, 기사 20면(광고 및 표지 포함)과 주요 기사와 관련한 학습지 형태의 Workbook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기사의 상단에는 주제의 영역과 함께 네잎클로버로 난이도가 표시

되어 있어 자료선정 시 도움이 되며, 하단에는 어려운 단어와 의미가 제공되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읽어 내려가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가르치던 읍면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이 신문을 학습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The Kids Times의 주된 대상층은 초등학교 5·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로 그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들, 유명 인사들의 동향 및 연예인과 스포츠, 일상생활의 이모저모를 10대 초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를 학습 자료로 접하는데 거부감과 부담감이 없이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어 실험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10대 초반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 어휘와 문장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습하고 교사가 지도하기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문장이 능동태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 수동태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읽기에 편하고 익숙하며, 형용사와 부사 위주가 아닌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 길이가 짧고 내용이 분명하여 읽어 나가기에 용이하다.

둘째, The Kids Times는 10대 초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알맞은 그 또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싣고 있다. 잠자기 습관, 애완동물 기르기, 학교생활, 좋아하는 운동, 먹거리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주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으며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The Kids Times는 10대 초반 학생들의 지적호기심과 시야를 세계로 넓힐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다른 나라의 명절, 의복, 음식, 관습 등과 같은 문화 및 사회, 특히 외국학교생활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 다문화 세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좁은 물론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간 의사소통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넷째, The Kids Times는 10대 초반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싣고 있다. 학습자들은 기사를 읽기 전에 사진과 그림만으로 주제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삽화를 통하여 사건 및 주제

를 전달하는 부분이 많아 배경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The Kids Times는 신문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읽기, 쓰기 및 듣기, 말하기 등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교실 수업에 활용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단어 따라 읽기, 게임 형태를 띤 단어 바르게 배열하기 등의 학습방법은 지루하지 않게 영어 학습을 도와주며 영어 듣기 및 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학습 자료로 선정한 The Kids Times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The Kids Times의 구성

면	주제 영역	내 용
1	Cover Picture	Special Focus 기사 관련 전면 사진
2	National News	국내의 다양한 소식
3	World News	해외의 다양한 소식
4	Photo News	사진을 중심으로 한 짧은 기사모음
5	Amazing News	이슈화된 흥미진진한 사건이나 감동적인 사례의 기사
6	Global Village	변화하는 지구촌의 이모저모
7	Science	과학과 관련된 기사
8-9	Special Focus	학생들의 생활과 성장에 유용한 정보나 이야기 제공
10	Think & Talk	일상생활의 한 측면을 주제로 선정하여 기사화한 후 관련대화를 통한 토의 상황제공
11	Animals	동물에 대한 기사
12	Culture	해외 문화, 관습 등을 소개
13	Enjoy Culture/ Entertainment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소개/연예 및 스포츠 관련 기사
14-15	English Letters	Mi-na와 Andy가 주고 받는 E-mail
16	Aha!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랄만한 기사
17	Places	세계 여러 나라 소개
18-19	People	유명인사 관련 기사
20	Advertisement	광고
21-28	Workbook	신문의 주요 기사 관련 Workbook 제공(신문 10면과 11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The Kids Times와 The Teen Times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이를 영어 전용교실에 비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영자신문 읽기를 독려하고 있지만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영어 읽기능력이 낮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받길은 뜬한 상황이다.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영자신문은 읽을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한 사진과 삽화가 실려 있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실험반 학생들을 위해 신문을 모아두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The Kids Times의 기사들 중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을 발췌하고 편집 가공한 후 실험반 학생들의 읽기 자료로 활용하였다. 매 차시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각 기사에 적합한 학습지를 별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업 흥미도를 높이고 성취도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2.2 평가도구 및 설문지

실험자들의 사전-사후 영어 읽기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10학년도 6월과 11월에 공동으로 실시한 중학교 3학년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문제지를 평가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실험자들의 사전 쓰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What do you do on weekends?'란 주제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후 영어 쓰기능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란 주제를 가지고 사후쓰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영어에 대한 자신감, 영자신문을 접한 경험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2.1 읽기 영역

학생들의 읽기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수업 전, 후 2차례에 걸쳐 읽기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읽기능력검사지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10학년도 6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 평가문제지를 이용하였고, 사후 읽기능력검사지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10학년도 11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 평가문제지를 이용하였다. 바로 지난해의 문제지는 학생들의 시험대비로 풀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 2010학년도 문제지를 선택하였다. 이 평가문제지들은 모두 듣기부분 10문항(1-10)과 읽기부분 20문항(11-30)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읽기부분의 20문항을 활용하여 총 20점으로 평가하였다. 측정영역 및 문항 구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사전-사후 읽기 능력 검사지 문항 구성

읽기능력영역	사전평사지 문항번호	사후검가지 문항번호
대화 연결	11,12	11,12
글의 흐름 파악	22,29	13,16,17,29
지시어 찾기	27	14
일치여부 파악	17,18,24,25	15,22,25
글의 요지 파악	13,15,23	18,24,30
글의 주제 파악	19,20,28	19,23
어휘 및 어법 문제	16	20
심경 파악	21,30	21
빈칸 완성	14,26	26,27
제목 추론	·	28

2.2.2 쓰기 영역

학생들의 쓰기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수업 전, 후 2차례에 걸쳐 쓰기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쓰기 주제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쉽고 평소 친숙한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사후쓰기에는 신문 읽기자료 내용과 연관된 주제를 선택하였다.

-사전 주제 : What do you do on weekends?

-사후 주제 :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실험수업 전과 후에 각 주제에 대해 40분 동안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하였고, 사전-사후 쓰기능력 평가 답안지 예시는 <부록 9>과 <부록 10>에 수록하였다.

글의 전체적인 평가는 연구자와 본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2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각 학생에게 쓰기 점수로 부여하였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쓰기 평가는 내용, 구성, 문법, 어휘 등 4가지 영역에 각각 5점씩 부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채점 기준표는 강금진(2005)과 정희자(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주제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자세한 채점기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영어 쓰기능력검자지 채점 기준표

영역	점수	채점 세부 기준
내용	5	주제가 분명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내용이 전개됨
	4	주제는 비교적 분명하나 내용전달에 있어 세부사항이 한정적이고 다소 부족함.
	3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나 내용이 중복하여 나와 이야기 발전이 없음.
	2	주제와 관련성이 적고 반복적인 내용이 나옴
	1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음.
구성	5	문장사이의 연관성이 높으며 글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함.
	4	문장사이의 연관성은 있으나 글의 흐름에 있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함.
	3	문장사이의 연관성이 적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함.
	2	문장사이의 관계나 문단 조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단순한 문장을 배열하는 수준
	1	문장구성이나 문장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의미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문법	5	복잡한 문장구조를 자유롭게 사용함. 어순, 시제일치, 관사, 전치사, 대명사 등을 거의 정확하게 사용함.
	4	복잡한 문장구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편임. 어순, 시제일치, 관사, 전치사, 대명사 등에서 오류가 있으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음.
	3	간단한 문장구조를 사용함. 여전히 문법오류가 많으나 의미전달이 가능함.
	2	문법적 오류가 많아 의미가 모호하거나 의미전달에 지장이 많음.
	1	언어사용규칙을 습득하지 못해 많은 문법적 오류로 의미전달이 되지 않음.
어휘	5	어휘가 풍부하고 사용이 적절하여 의미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4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여 의미전달에 지장이 없으나 단어나 숙어의 사용에 다소 오류가 있음.
	3	어휘 사용이 제한적이나 관련 내용 전달이 가능한 정도임.
	2	어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련 내용 전달이 부족함.
	1	사용된 어휘가 부적절하여 관련 내용 전달이 되지 않음.

2.2.3 정의적 영역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태도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전과 후에 개인 면담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생각과 영자신문의 활용, 읽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문유미(2010)와 정희자(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시작하여 '매우 그렇다'까지 5척도 설문지를 작성하여 활용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형 설문문항도 포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표 7>과 같으며, 사전과 사후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 1>과 <부록 2>에 수록하였다.

<표 7> 사전-사후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번호 사전/사후	응답유형
사전 설문조사	평소 하루의 영어 학습 시간		1	선택형
	영어 학습 자료		2	선택형
사전-사후 설문조사	읽기	흥미	3/1	5단계 척도
		자신감	4/2	
		필요성	5/3	
		동기	6/4	
	쓰기	흥미	7/5	
		자신감	8/6	
		필요성	9/7	
		동기	10/8,9	
	영자신문	활용정도	11/15	
		흥미	12,13/10	
		관심영역	14/11	선택형
		읽기에 어려운 영역	15/12,13	선택형
	쓰기에 어려운 영역	16/14	선택형	

설문 조사는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

고 솔직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모두 무기명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3. 수업의 설계와 실제

3.1 수업의 설계

본 연구의 수업은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주 4회, 45분씩 영어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학습 자료로서 신문 기사는 교과서 내용과는 다르게 매시간 새로운 기사들로 선정하였다. 기사를 학습 자료로 선정할 때에는 첫째, 활용하고자 하는 신문기사가 학습자들의 연령이나 수준에 부합되는가? 둘째, 활용하고자 하는 신문기사가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교육적으로도 적합한가? 셋째, 활용하고자 하는 신문기사가 학습자들의 기존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시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9> 연구에 활용한 신문기사

차시	주제 영역	기사제목
1	An Article	To let students select an article for themselves.
2	An Article	To let students select an article for themselves.
3	Special Focus	Time to Enjoy Watermelon
4	Special Focus	Bring More Humor & Laughter into Your Life
5	Amazing News	World's Tallest Human Tower Built in New York
6	Global village	Pixar Plans New Films about Dinosaurs & Human Brain
7	People	I'm the World's Oldest Super Model! Daphne Selfe
8	Think Talk (I think...)	What Is the Happiest Job?
9	Think Talk (I think...)	Is It OK to Sleep with a Pet?
10	English Letters	How Can I Get to U.S. Embassy?
11	Animals/Nature	Animals Like Listening to a Certain Kind of Music?
12	English Letters	Red Apple! Yellow Banana!
13	Amazing News	I Can Stop Your Hiccups!
14	Places	Albania
15	Culture/Entertainment	Be Careful When Walking Down a Street in Florida!
16	National News	Korean Language Goes to the World

언어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인 수업지도 모형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김학상(1999)의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에 적합한 수업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표 10>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수업모형

수업단계	학습활동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나 삽화, 사진 등을 보고 내용 예측하기 - 제목 살펴보기 - 화제에 대해 사전에 질문하기 - 문화적 차이에 대해 말해보기 - 새로운 어휘 익히기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 읽기 - 문맥에서 모르는 단어 예상하기 - 새로운 구문 익히기 - 읽는 동안 단락별 핵심어를 순서대로 그리기 - 읽는 동안 단락별 핵심내용 쓰기 - 예측한 것들을 확인하기 - 학습지를 통한 내용 이해도 점검하기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항 찾아보기 - 어휘 확장하기 - 주제 정리하기 - 기사를 읽은 후 내용 요약하기 - 기사를 읽은 후 기사 소개하는 글쓰기 - 기사를 읽은 후 자기 생각쓰기

본 연구자는 위의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수업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문 기사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학습지를 제작하여 읽기 활동과 쓰기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표 11> 차시별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활동

차시	기사제목	읽기활동	쓰기활동
1	To let students select an article for themselves.	신문을 훑어보며 읽을 기사 선정하기	읽은 기사 중 핵심 문장 골라 쓰기
2	To let students select an article for themselves.	신문을 훑어보며 읽을 기사 선정하기	읽은 기사 소개하는 광고 글쓰기
3	Time to Enjoy Watermelon	기사를 읽으며 수박의 특징 기억하기	수박의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4	Bring More Humor & Laughter into Your Life	기사를 읽으며 유머와 웃음의 효과 이해하기	웃을 수 있는 상황을 한 가지씩 써보기
5	World's Tallest Human Tower Built in New York	기사를 읽으며 Human Tower 쌓은 이유 알기	Human Tower 사진보며 묘사하기
6	Pixar Plans New Films about Dinosaurs & Human Brain	Pixar가 계획하고 있는 Animation Movies 엿보기	좋아하는 Animation Movie 소개하기
7	I'm the World's Oldest Super Model! Daphne Selfe	기사를 읽으며 Daphne Selfe 인물알기	사진 속 인물 직업 추측하기 및 묘사하기
8	What Is the Happiest Job?	기사 읽으며 단락별 핵심어 찾기	단락별 핵심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순서도 작성하기
9	Is It OK to Sleep with a Pet?	기사를 읽으며 단락별 주요 동사 찾아보기	주요 동사를 가지고 동물에 대한 글 써보기
10	How Can I Get to U.S. Embassy?	일의 진행을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부사 따라 읽기	기사에 사용된 부사들을 중심으로 기사 정리하기
11	Animals Like Listening to a Certain Kind of Music?	기사를 읽고 학습지에서 기사에 나왔던 단어 찾기	기사에 나왔던 단어 중심으로 동물이 할 수 있는 일 쓰기
12	Red Apple! Yellow Banana!	기사 속에서 'Red Apple', 'Yellow Banana' 의미 알기	자신의 'Red Apple'의 경우를 써보기
13	I Can Stop Your Hiccups!	기사를 읽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건강과 관련하여 힘들었던 경험을 써보기

14	Albania	지도상에서 Albania 위치를 확인하면서 기사 읽기	Albania에 대해 기사를 토대로 알게 된 사실 쓰기
15	Be Careful When Walking Down a Street in Florida!	Florida 거리를 걷는 일이 위험하게 된 이유 알기	길을 걷기에 위험한 요소들을 써보기
16	Korean Language Goes to the World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과정이 신설되는 사실 알기	한글이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정리하기

3.2 수업의 실제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은 미리 계획된 수업설계에 따라 2012년 7월 2-3주와 8월 3-4주에 걸쳐 4주 동안 총 16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3.2.1 학습자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적고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는 다소 있는 편이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자신문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 각자에게 영어신문 읽기라는 부담감을 줄이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구성하였다. 소그룹 편성은 사전 읽기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 중, 하 수준의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편성하였으며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 간에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교체하여 편성하였다. 소그룹 인원은 보통 3-5명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고 실험반 학생수가 28명이어서 한 조에 4명으로 구성된 2개조와 5명으로 구성된 4개조로 모두 6개조로 편성하였다. 책상을 돌려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하여 학습활동 시 서로 협력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3.2.2 교사

읽기와 쓰기 학습은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학습의지를 가지고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표현할 때 학습효과가 높다. 따라서 교사중심의 교수-학습방

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첫째, 언어능력이란 직접 언어활동을 수행할 때 향상되는 것이므로 영어 읽기와 쓰기활동에 있어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지시하기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나 소집단을 도와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직접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학생중심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교사가 읽기 자료를 선정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읽고 싶은 기사들을 추천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읽기 자료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이 영자신문의 기사를 통한 영어 학습을 하면서 읽기와 쓰기활동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세웠고, 학습자들은 이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활동과 팀원의 활동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활동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소그룹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역할분담을 도와주었고, 그룹별 학습활동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반응을 보고 들으면서 구성원 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3.2.3 수업절차

영어수업의 절차는 연구자가 구안한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에 적합한 수업모형 <표 10>에 따라 다음 4가지 학습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학습자료 및 학습활동 결과물은 <부록 3>에서 <부록 8>에 걸쳐 수록하였다.

<영자신문과 친숙해지기>

영자신문을 활용한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에 앞서 영자신문과 친숙해지는 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부담감을 덜어주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영자신문과 접해본 경험이 매우 적어 영자신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영자신문에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실리는지, 영자신문은 영어 학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8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된 실제신문을

제공하였다. 수업 1차시와 2차시에 영자신문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직접 기사를 골라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다소 날짜가 지난 신문까지 모두 모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각 그룹에 따라서 학습자 각자가 기사를 선택하여 읽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의 기사를 선정하여 조원들이 함께 학습하는 조도 있었다. 자유롭게 기사를 읽는 과정 속에서 학습 목표를 갖도록 하기 위해 1차시에는 기사를 읽고 난 후 기사와 주요 문장에 밑줄을 긋게 하고 읽기가 끝난 후 그 문장들을 학습지에 쓰도록 하였다. 2차시에는 소그룹별로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기사를 읽고 난 후 그 기사를 소개하는 광고 글쓰기를 하게 하였다.

<쓰기 후 읽기활동>

3차시부터 16차시까지의 총 14시간 수업은 본 연구자가 학생들이 읽고 싶은 기사로 추천한 기사를 토대로 매 차시 하나의 기사를 선정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지를 미리 제작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중에서 5시간(3,4,5,6,7차시)은 <쓰기 후 읽기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쓰기 후 읽기활동은 기사를 읽기 전에 기사와 제목, 삽화, 사진을 보거나 또는 기사의 앞부분을 읽고 이 기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미리 예측하여 써보거나 질문하기 등의 쓰기활동을 한 후 읽기활동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쓰기활동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전 설문조사에서 보였듯이 쓰기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먼저 읽고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등의 긴 글을 쓰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의지를 꺾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이나 삽화 등을 쓰기에 활용하여 기사를 읽기 전에 사진을 보며 간단히 이야기 하면서 한, 두 문장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쓰기와 접목을 시켜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기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기사와 관련된 사전 지식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기사이해를 높여주었다. 다음은 Time to Enjoy Watermelon의 기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수업 계획안이다.

<표 12> 3차시 수업계획안(쓰기 후 읽기활동)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수업단계		3차시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1	글의 제목이나 삽화, 사진 등을 보고 글의 내용 미리 예측하기	쓰기활동을 통한 동기유발 -기사속의 3장의 사진 묘사하기 -Watermelon의 특징 쓰기	15'	새로 익힌 단어를 활용하여 watermelon의 특징을 소그룹별로 쓰기
	새로운 어휘 익히기	Watermelon과 연관된 단어 익히기 hydrated, nutritious, nutrient fiber, stripe, edible, rind		
2	신문기사 읽기	기사읽기 -구성원이 각각 1-2단락씩 읽기	20'	그룹별 활동
	읽는 동안 단락별 핵심어 찾기	-각 단락별 주제를 말하고 주제와 관련된 단어정리하기 -공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기사 빠르게 읽기		
	기사 내용 이해정도 점검하기	이해정도 확인하기 -학습지에 제시된 문제를 풀면서 이해정도 확인하기		
3	기사내용 다시 읽기	기사내용 다시 읽기 -기사를 개별적으로 자세히 읽고 이해도 높이기	10'	개별 활동

수박을 먹는 사진, 원두막 삽화, 가족이 행복하게 수박을 즐기는 사진을 보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박에 대한 추억과 함께 사진을 묘사해 나갔다. 수업초반에 개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다소 소란스런 분위기가 되었지만 소그룹 구성원들 간에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Watermelon과 관련된 다소 어려운 단어들도 거부

감 없이 학습하게 되었고 Watermelon의 특징들을 영어문장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기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게 되고 기사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6단락으로 된 긴 기사를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쓰면서 읽기활동>

16차시 수업 중 4시간(8,9,10,11차시)을 쓰면서 읽기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쓰면서 읽기 활동은 제시된 글의 각 단락별 핵심어들을 순서도로 그리거나 각 단락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기활동을 하는 것이다. 단락별 핵심어를 찾아 순서도를 작성하고 그 순서도를 소그룹 구성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할 수 있고, 틀린 경우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정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학습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즉 단어에서 시작하여 문장 단위를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모아서 단락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순서도 그리거나 단락별 내용요약과 같은 쓰기활동은 읽기를 강화시켜 주었다. 다음은 What Is the Happiest Job?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수업하며 이루어졌던 학습활동이다.

<표 13> 8차시 수업 계획안(쓰면서 읽기활동)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수업단계		8 차시 교수-학습활동	시 간	비고
1	글의 제목이나 삽화, 사진 등을 보고 글의 내용 미리 예측하기	학습 동기 유발 -사진속의 직업들을 이야기 해보기 -미래의 직업 이야기하기	15'	직업관련 다양한 사진 PPT를 제시한다.
	새로운 어휘 익히기	직업과 관련된 어휘 학습 -PPT를 활용한 어휘학습: artist, musician, poet, entertainer, lawyer, diplomat, prosecutor, stable, aptitude, ability, vision		
2	신문기사 읽기	읽기활동 -직업관련 기사의 짧은 서문 읽기	25'	그룹별 활동
	단락별 핵심어를 순서도로 그리기	읽기활동 -직업에 대한 Susie와 Eugene의 대화 읽기 -대화속의 핵심단어 찾아 순서도 그리기 -단어의 순서도에 따라 기사 정확히 읽기		
	기사 내용 이해정도 점검하기	이해도 점검 -간단한 질문을 통해 기사 이해정도 점검		
3	기사를 읽은 후 내용정리	쓰기활동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찾아 쓰기	5'	개별 활동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업과 관련된 영자신문기사는 학생들의 관

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사속의 사진을 통해 직업의 종류에 대한 영어단어들을 익히고 미래에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 하며 기사읽기를 위한 준비를 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각 단락별 핵심단어를 찾아 핵심어의 순서도를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 간에 순서도를 비교하면서 개별적으로 기사를 정확히 읽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핵심어를 찾아 순서도를 그리며 읽기는 각 단락별 읽기에 집중력을 높이고 구성원간의 순서도 비교에서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 어느 부분의 내용이해에 오류가 있었는지 찾아 수정할 수 있어 기사를 정확하고 바르게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쓰면서 읽기 활동을 통해 기사를 정확하게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 학습 마무리 단계에서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려해할 사항들을 찾아 정리하는 과업을 어려움 없이 수행해 나갔다.

<읽기 후 쓰기활동>

16차시 수업 중에서 5시간(12,13,14,15,16차시)을 읽기 후 쓰기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읽기 후 쓰기 활동은 제시된 글을 읽은 후 내용 요약하기, 독후감 쓰기나 내용 소개하기, 읽은 글을 모방하여 써 보기, 다른 장르로 바꾸어 써 보기 등의 활동이 있다. 즉 정확한 읽기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지적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쓰기활동 초기부터 적용하기에는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심리상태나 수준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 짧은 어구에서 시작하여 문장들을 써보고 더 나아가 짧은 단락을 구성하는 쓰기연습을 10시간 정도 한 후에 이 활동을 적용하였다. 다음은 Red Apple! Yellow Banana! 기사를 가지고 읽기 후 쓰기활동 수업을 진행한 학습계획안이다.

<표 14> 12차시 수업 계획안(읽기 후 쓰기활동)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수업단계		12차시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1	글의 삽화, 사진 등을 보고 글의 내용 미리 예측하기	학습 동기 유발 -삽화 속 인물들의 기분상태를 표현하기 -화가 나는 경우 이야기하기	10'	자신의 기분을 영어로 표현하기
	새로운 어휘 익히기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학습 -이모티콘을 활용한 어휘학습: happy, excited, angry, sad, lonely, annoyed. frightened, astonished, perplexed, frustrated		
2	신문기사 읽기	읽기활동 -두 가지 경험담을 사건 진행과 사건 진행에 따른 감정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읽기 -Red Apple! Yellow Banana! 의 효과에 대해 의견교환하기	20'	그룹별 활동
	기사 내용 이해정도 점검하기	이해도 점검 -간단한 질문을 통해 기사 이해도 점검		
3	기사를 읽은 후 생각 쓰기	쓰기활동 -화가 났던 경험을 한 가지 쓰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15'	개별 활동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쓰고자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나 구문을 먼저 익힌 후에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Red Apple! Yellow Banana! 기사를 가지고 화가 났던 경험과 느낌을 써보는 데 학습목표를 두고 감정표현의 어휘와 구문을 기사를 통하여 먼저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글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get angry/upset/mad/indignant', 'get annoyed/distressed/irritated', 'feel flat/ bored', 'feel embarrassed/ashamed', 'feel disappointed/depressed/frustrated' 등의 표현을 기사와 관련하여 학습하고 문제에 접어드는 표현 'get into an arguments/trouble'을 익혀 자신의 경험을 쓰는데 활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은 글을 쓰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감정을 풍부하고 세심하게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의 효과를 읽기능력의 변화, 쓰기능력의 변화,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 요인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1. 영어 읽기능력의 변화

학생들의 읽기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수업 전, 후 2차례 걸쳐 읽기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읽기능력검사지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10학년도 6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 영어문제지 중 읽기부분 20문항(11번-30번)을 활용하여 총 20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15> 사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대상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반	28	11.14	4.18	-0.915	0.184
비교반	28	12.14	3.93		

*p<.05

사전읽기 능력 테스트에서 실험반의 평균점수와 비교반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비교반의 평균점수가 1점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확률 .184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읽기능력검사지로는 사전 읽기능력 검사지와 문제의 난이도를 같게 하기 위해 동일 출제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개발한 2010학년도 11월 창의

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 영어문제지 중 읽기부분의 20문항(11번-30번)을 활용하여 총 20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16> 사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대상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반	28	12.35	4.28	0.112	0.454
비교반	28	12.21	4.88		

*p<.05

사후 읽기능력 테스트에서 실험반의 평균점수와 비교반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0.14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아주 미미하며 유의확률도 사전보다 더 상승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전 읽기테스트에서 비교반의 평균점수가 1점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후 읽기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실험반에서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동일반의 사전-사후 읽기능력평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실험반 사전-사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사전	28	11.14	4.18	-2.855	0.004*
사후	28	12.35	4.28		

*p<.05

실험반의 경우 사전-사후 읽기능력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사전 평균점수 11.14에서 사후 평균점수 12.35로 사후 평균점수가 1.21점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고, 유의확률 .004로 유의수준 .05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8> 비교반 사전-사후 읽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사전	28	12.14	3.93	-0.143	0.443
사후	28	12.21	4.88		

*p<.05

비교반의 경우에도 사전 평균점수 12.14에서 사후 평균점수 12.21로 사후 평균 점수가 약간의 향상은 보이고 있으나 유의확률 .443이 보여주듯이 유의수준 .05에서 비교반에서는 사전-사후 읽기능력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 영어 쓰기능력의 변화

학생들의 쓰기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수업 전 쓰기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쓰기 주제로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쉽고 친숙한 주제인 What do you do on weekends?로 선정했다.

쓰기 평가는 내용, 구성, 문법, 어휘 등 4가지 영역에 각각 5점씩을 부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표 19> 사전 쓰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반	28	10.43	3.95	-1.004	0.133
비교반	28	11.68	4.23		

*p<.05

사전 쓰기평가에서도 읽기평가에서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전 쓰기능력 테스트에서 비교반의 평균점수가 1.25점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확률 0.133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 쓰기 주제로는 영자신문 읽기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미래의 직업에 대한 질문인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표 20> 사후 쓰기능력 평가 t-검정결과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실험반	28	12.21	4.25	0.269	0.394
비교반	28	11.89	4.47		

*p<.05

사후 쓰기능력 테스트에 나타난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0.42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수치상으로 아주 미미하며 유의확률도 사전보다 더 상승하여 유의확률 .394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일수준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전 쓰기평가에서 비교반의 평균점수가 1.25점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후 쓰기평가에서 실험반의 평균점수가 비교반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실험반 학생들의 사후 쓰기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동일반의 사전-사후 쓰기능력평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실험반 사전-사후 쓰기 능력 평가 t-검정결과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사전	28	10.43	3.94	-4.294	0.000*
사후	28	12.21	4.25		

*p<.05

실험반의 경우 사전-사후 쓰기능력 평가에서 사전 평균점수 10.43에서 사후 평균점수 12.21로 사후 평균점수가 1.78점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고, 유의확률 .000로 유의수준 .05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 비교반 사전-사후 쓰기 능력 평가 t-검정결과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사전	28	11.68	4.23	-0.241	0.405
사후	28	11.89	4.47		

*p<.05

비교반의 경우에는 사전 평균점수 11.68에서 사후 평균점수 11.89로 사후 평균 점수가 약간의 향상은 보이고 있으나 유의확률 .405가 보여주듯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사전과 사후 쓰기능력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험반의 쓰기능력 향상 정도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실험반 사전-사후 쓰기 영역별 t-검정 결과

쓰기영역	시기	인원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p
내용(5)	사전	28	3.00	1.22	-3.440	0.001*
	사후	28	3.57	1.15		
구성(5)	사전	28	2.24	1.02	-1.981	0.028*
	사후	28	2.82	1.36		
문법(5)	사전	28	1.94	0.84	-2.121	0.022*
	사후	28	2.21	1.01		
어휘(5)	사전	28	2.96	1.15	-3.732	0.000*
	사후	28	3.61	1.11		

*p<.05

분석적 쓰기평가의 각 항목별 향상 정도를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내용 0.57, 구성 0.58, 문법 0.27, 어휘 0.65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이 보여주듯이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휘영역의 향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쓰기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에서 익숙해진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문법영역에서 낮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자신문을 읽으면서 어휘와 내용적인 요소 등 읽기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문법적 요소를 많이 다루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3.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의 효과

읽기와 쓰기는 공통적으로 문자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두 기능의 특성상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때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읽기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쓰기를 지도할 경우에도 읽기와 쓰기를 분리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본 연구자는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실험반의 읽기 및 쓰기 평가결과를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정도를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r 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24>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의 상관관계

평가항목			사전읽기	사후읽기	사전쓰기	사후쓰기
사전읽기	28	pearson 상관계수(r)	1			
사후읽기	28	pearson 상관계수(r)	0.863**	1		
사전쓰기	28	pearson 상관계수(r)	0.634**	0.791**	1	
사후쓰기	28	pearson 상관계수(r)	0.779**	0.924**	0.864**	1

** $p < .01$

위 자료에서 보듯이 모든 경우에 읽기평가결과와 쓰기평가결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며 유의확률 1%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읽기와 쓰기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전읽기와 사전쓰기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하기는 하나 r 의 값이 .634로 다른 상관관계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가 진행되기 전 읽기학습에 비해 쓰기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사후 읽기와 사후 쓰기의 상관관계인 r 의 값은 .924로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 데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정의적 영역 변화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전, 후의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및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전과 후에 1:1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상위권, 중위권 및 하위권 학생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상위권 학생 P

내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 정도는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영자신문으로 수업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얼른 신문을 읽어 보고 싶어요. 내 영어실력으로 영자신문을 읽을 수 있을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사전면담)

영자신문의 기사를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쓰기가 제일 자신감이 없었는데 신문기사 문장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말로 먼저 써놓고 그것을 영어로 바꿔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영자신문의 문장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문장을 참고해서 글을 쓰니까 글을 쓰는데 수월했어요. 하지만 1시간에 정해진 기사 하나만을 읽으니까 아쉬웠어요. 읽고 싶은 기사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으면 더 많은 기사를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사후면담)

2) 중위권 학생 L

영자신문으로 공부할 거라 생각하니 신이나요. 우선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교과서하면 시험이 생각나서 싫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요. 과연 영자신문을 내가 읽을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요. 영어 쓰기는 싫어요. 읽기도 자신이 없는데, 그냥 신문을 읽어가면서 즐기면 안 되나요? (사전면담)

영자신문 읽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관련 그림도 많이 실려 있고, 친구들이랑 기사와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읽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괜히 혼자서 영어기사 다 이해하는 것 같은 착각도 했어요. 앞으로도 영자신문 계속 읽어볼게요. 뒤에 신문 치우지 마세요. 쓰기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아는 단어 몇 개씩 연결하여 냈는데 선생님이 내 글을 이해하는 게 신기했어요. 전에는 문법에 맞는지 걱정부터 되서 아예 글쓰기를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한 단어가 나오면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후면담)

3) 하위권 학생 H

영어공부 잘하고 싶어요.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영어만 보면 졸음이 와요. 영자신문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영자신문으로 공부해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교과서로 해요. 별 차이도 없는데. (사전면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왔어요. 그림도 많고, 내가 아는 얘기들이 나와서 신문 안 읽고도 친구들이랑 얘기도 되고... 그룹별로 앉아서 친구들이 단어 뜻도 말해주고... 자지는 않았어요. 친구 도움으로 알게 된 단어 중심으로 내 나름대로 추측하여 기사내용 추측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아는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요. (사후면담)

1:1 면담에서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수업에 대해 응답 학생들은 학습수준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더 상승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사전면담 중 특히 쓰기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부담감이 컸었는데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으로 영문 쓰기에 대한 학습태도와 심리적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읽기, 영어쓰기 및 영자신문에 대한 실험반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4.1 영어읽기에 대한 정의적 영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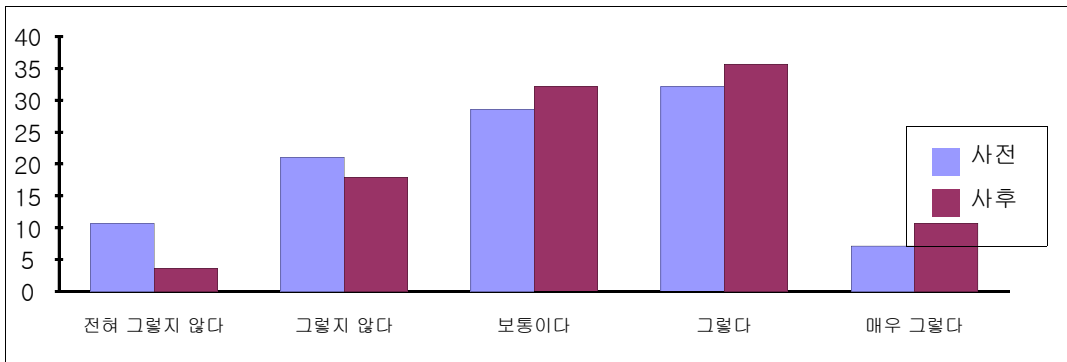
4.1.1 영어읽기에 대한 사전-사후 흥미도 변화

사전 설문문항: 영어읽기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읽기에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표 25> 영어읽기에 대한 흥미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6	21.4	8	28.6	9	32.1	2	7.1	3.04
사후	1	3.6	5	17.9	9	32.1	10	35.7	3	10.7	3.32



<그림 1> 영어읽기에 대한 흥미도(%)

영어읽기에 대한 사전 흥미도 조사에서 리커트의 5점 척도에 의한 평균값이 3.04로 나타나 읽기에 대해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점과 5점에 응답한 비율이 3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읽기에 관심이 있으며 영어를 잘 읽고 싶다는 학생들이 바람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1점과 2점에 응답한 학생도 25%정도가 되어 면담결과 여기에 응답한 학생들은 가능하면 영어읽기를 피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 수 있었다.

사후 흥미도 조사 평균점수가 3.32로 나타나 사전결과 점수보다 0.28높게 나타나 영어읽기에 대한 흥미도가 한 단계씩 높아졌음을 <그림 2>에서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교과서만으로 읽기에 중점을 둔 교사중심의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는 수동적인 영어 학습을 해왔다. 그러나 영자신문을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은 주제선정에서 학습활동에 이르기까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영어읽기에 대한 흥미도도 이에 따라 점차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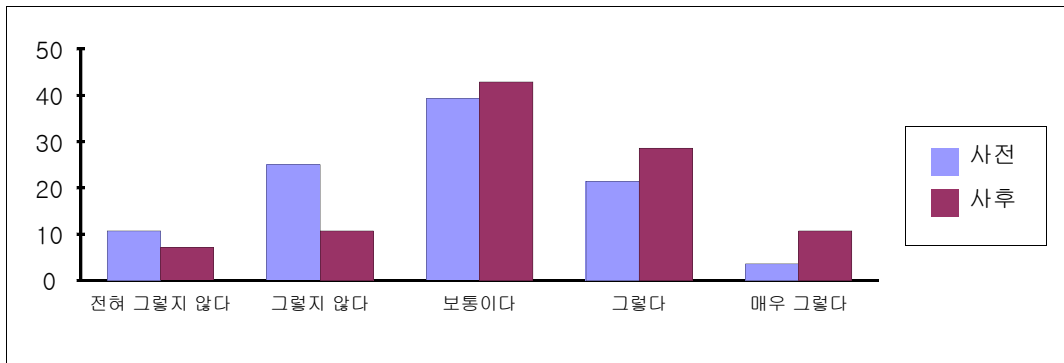
4.1.2 영어읽기에 대한 사전-사후 자신감 변화

사전 설문문항: 영어읽기에 자신감이 있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읽기에 자신감이 높아졌다.

<표 26>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7	25.0	11	39.3	6	21.4	1	3.6	2.82
사후	2	7.1	3	10.7	12	42.9	8	28.6	3	10.7	3.25



<그림 2>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평균값이 2.82로 낮게 나와 영어에 대한 흥미에 비해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에서 보듯 1점대와 2점대에 응답한 비율은 35.7%로 영어읽기에 대한 사전 흥미도에서 보여준 32.1%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에서 4점과 5점에 응답한 사전비율(25.0%)은 영어읽기 흥미도의 사전비율(3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읽기에 흥미는 있으나 자신감은 떨어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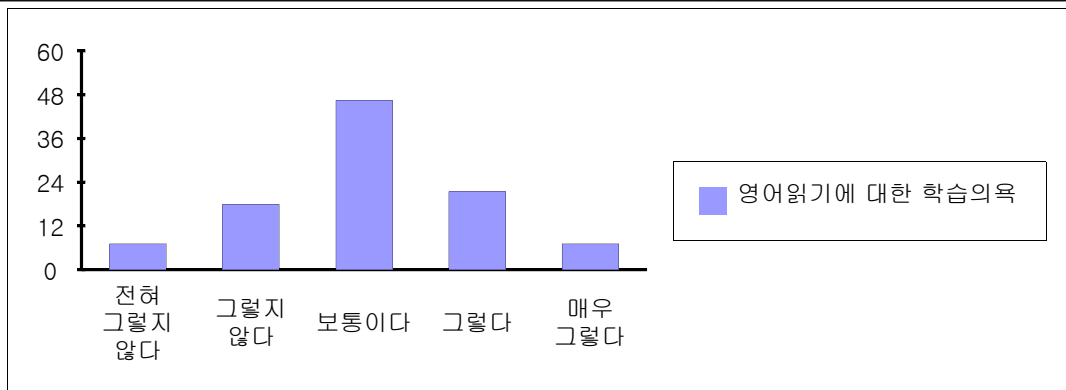
사후 자신감 조사에서 평균값이 3.25로 사전에 비해 상당히 상승하여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읽기자료 제시와 체계적인 학생중심의 읽기와 쓰기활동이 학생들의 영어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1.3 읽기에 대한 사후 자기주도적 태도

사후 설문문항 :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읽기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의욕이 생겼다.

<표 27> 자기주도적인 읽기 학습태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후	2	7.1	5	17.9	13	46.4	6	21.4	2	7.1	3.04



<그림 3> 자기주도적인 읽기 학습태도(%)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이후 영어읽기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 평균값이 3.04로 나타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3점대에 응답한 것은 아직은 영어읽기를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정도까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기간이

2달로 짧았고, 투입된 수업 양이 충분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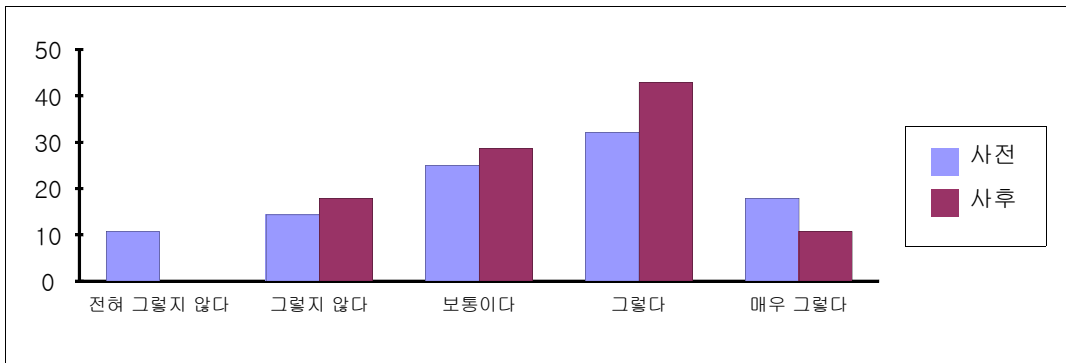
4.1.4 다양한 자료가 읽기학습에 미치는 영향

사전 설문문항: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읽기에 도움이 되었다.

<표 28> 다양한 자료가 읽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4	14.3	7	25.0	9	32.1	5	17.9	3.32
사후	0	0	5	17.9	8	28.6	12	42.9	3	10.7	3.46



<그림 4> 다양한 자료가 읽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읽기학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응답에서 응답 평균값 3.32로 나타나 대체로 학생들이 다양한 읽기자료를 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읽기자료를 통한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 읽기학습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사후 질문 응답 평균값은 3.46으로 사전 응답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변화에서 확연히 볼 수 있듯이 5점대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사전 설문조사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가 읽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과서를 넘어선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읽기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들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수업시간 1차시와 2차시

를 제외하고는 매 차시마다 연구자가 읽기자료를 선정하고 다뤄지는 기사의 분량도 한 시간에 1편의 기사로 한정함으로써 상위권 학생들이 새롭고 다양한 읽기자료에 대한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4.2 영어쓰기에 대한 정의적 영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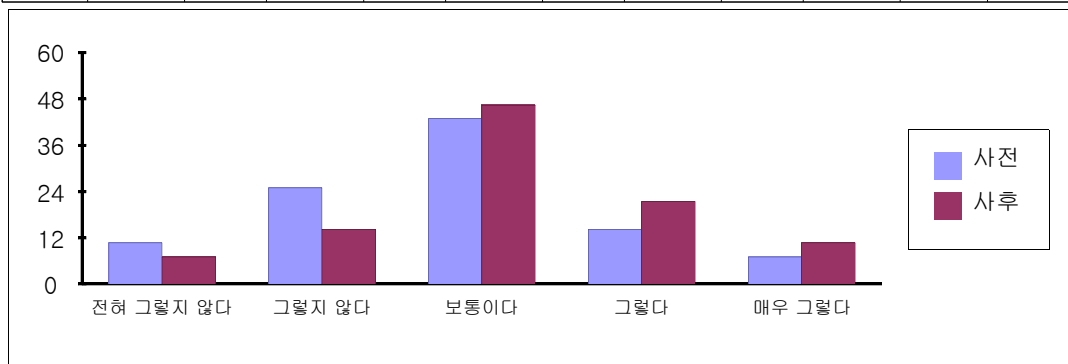
4.2.1 영어쓰기에 대한 사전-사후 흥미도 변화

사전 설문문항 : 영어쓰기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쓰기에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표 29>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7	25	12	42.9	4	14.3	2	7.1	2.82
사후	2	7.1	4	14.3	13	46.4	6	21.4	3	10.7	3.14



<그림 5>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도(%)

영어쓰기에 대한 사전 흥미도 조사에서는 응답 평균값이 2.82로 영어읽기에 대한 사전흥미도 조사와는 달리 매우 낮게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쓰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도 읽기평가에 중점을 두고 쓰기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는 교육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조사에서는 응답 평균값이 3.14로 쓰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향상되었고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모든 단계에서 쓰기에 대한 관심도가 한 단계씩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한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중간층 이상 학생들이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가 상승했음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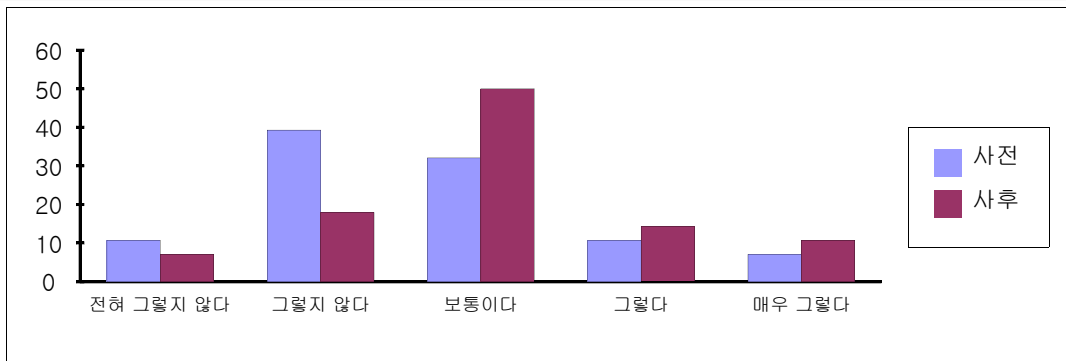
4.2.2 영어쓰기에 대한 사전-사후 자신감 변화

사전 설문문항: 영어쓰기에 자신감이 있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쓰기에 자신감이 높아졌다.

<표 30>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11	39.3	9	32.1	3	10.7	2	7.1	2.64
사후	2	7.1	5	17.9	14	50.0	4	14.3	3	10.7	3.04



<그림 6>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사전 조사에서는 응답 평균값이 2.64로 모든 설문문항 중에서 제일 낮게 나왔다. 이는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도 뿐 아니라, 영어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영어로 글을 쓴다는 사실 자체에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평균값이 3.04로 나와 영어쓰기에 대해 아직은 크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지만 <그림 6>이 보여주듯 영어쓰기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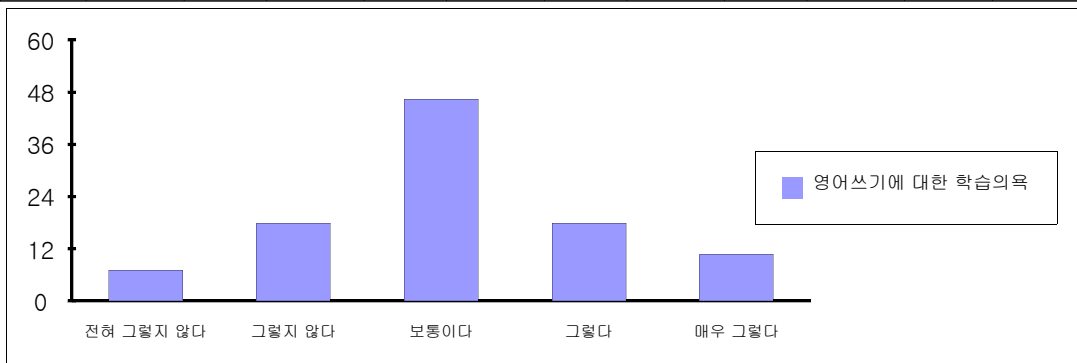
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가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쓰기활동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많이 부여하면서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4.2.3 쓰기 학습에 대한 사후 자기주도적 태도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쓰기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의욕이 생겼다.

<표 31> 자기주도적인 쓰기 학습태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후	2	7.1	5	17.9	13	46.4	5	17.9	3	10.7	3.07



<그림 7> 자기주도적인 쓰기 학습태도(%)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 후 영어쓰기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평균값이 3.07로 나타나 쓰기학습에 대한 학습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영어읽기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서 보여준 평균값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연구 전 영어 쓰기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쓰기에 대한 사후 흥미도 상승과 꾸준한 쓰기활동에서 오는 자신감의 결과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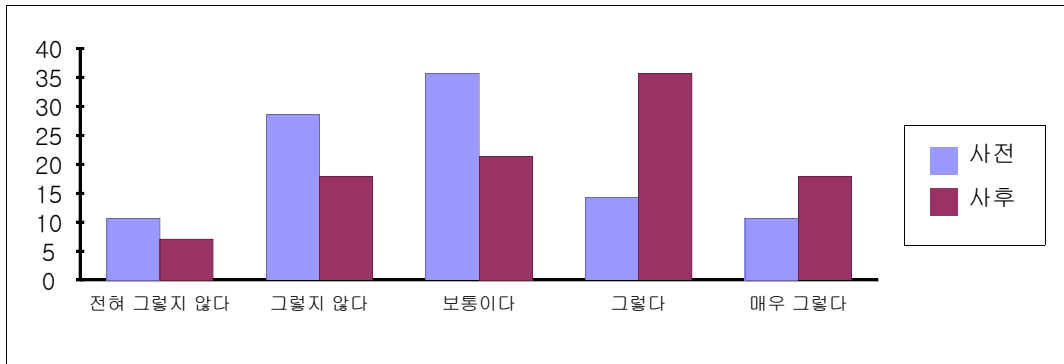
4.2.4 다양한 읽기자료가 쓰기학습에 미치는 영향

사전 설문문항: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의 다양한 기사읽기가 영어 쓰기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표 32> 다양한 영어 읽기자료가 쓰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8	28.6	10	35.7	4	14.3	3	10.7	2.86
사후	2	7.1	5	17.9	6	21.4	10	35.7	5	17.9	3.39



<그림 8> 다양한 읽기자료가 쓰기학습에 미치는 유용도(%)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쓰기학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응답 평균값이 2.86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대체로 다양한 읽기자료 활용이 영어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투입한 이후의 질문에서는 응답 평균값이 3.39로 나타나 <그림 8>에서 확연히 보여주듯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이 학생들에게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을 높여준 결과를 보여주었다.

4.3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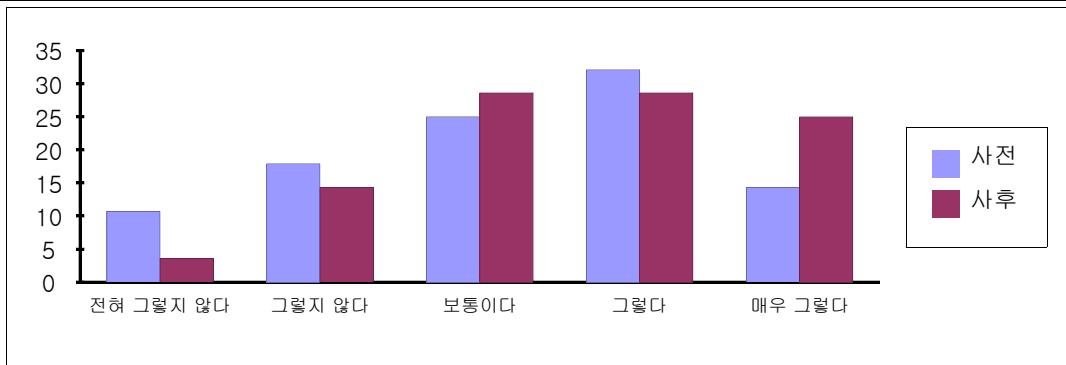
4.3.1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흥미도 변화

사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교과서수업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표 33>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학습 흥미도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3	10.7	5	17.9	7	25.0	9	32.1	4	14.3	3.21
사후	1	3.6	4	14.3	8	28.6	8	28.6	7	25.0	3.57



<그림 9> 영자신문 활용에 따른 학습 흥미도(%)

영자신문 활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정도를 묻는 사전-사후 설문조사에서 응답 평균값이 각각 3.21과 3.57로 영자신문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사전과 사후 모두 흥미를 나타내었고 특히 5점대에 대한 응답률이 사후에 10%이상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학습 자료를 원하고 있으며, 영자신문에 실려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기사들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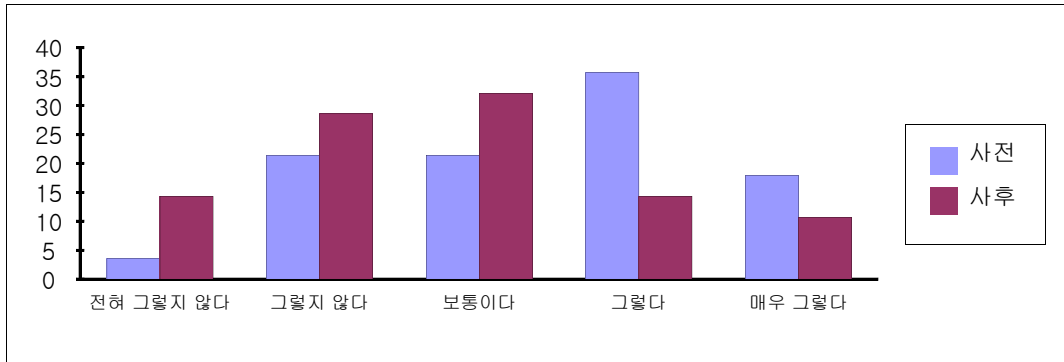
4.3.2 영자신문 활용 수업에 대한 사전-사후 심리적 부담감 변화

사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후 설문문항: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어려웠다.

<표 34> 영자신문 활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전	1	3.57	6	21.4	6	21.4	10	35.7	5	17.9	3.43
사후	4	14.3	8	28.6	9	32.1	4	14.3	3	10.7	2.79



<그림 10> 영자신문 활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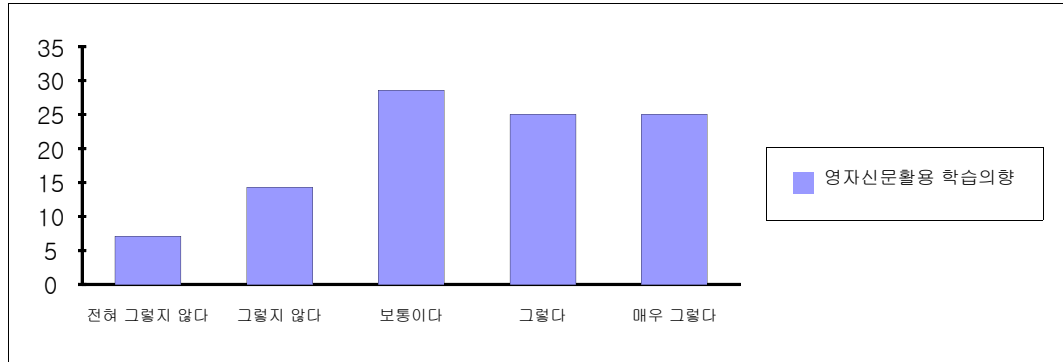
영자신문 활용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문항에 실험 전 학생들의 응답 평균값이 3.43으로 나타나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부담감도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자신문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며 이를 활용한 수업을 받아보지 못한 데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어려웠느냐는 사후 설문에서는 응답 평균값이 2.79로 나타나 영자신문 활용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 자료로서 영자신문을 선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 기사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기사를 읽는 부담감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라 분석된다.

4.3.3 영어 학습 시 영자신문을 사용할 의향

사후 설문문항: 앞으로 영자신문을 가지고 영어를 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표 35> 영자신문 활용 학습의향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후	2	7.1	4	14.3	8	28.6	7	25.0	7	25.0	3.46



<그림 11> 영자신문 활용 학습의향(%)

앞으로 영어 학습을 하는데 영자신문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평균값이 3.46으로 나타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기사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진작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5. 논의

본 장에서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가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를 통한 중학교 영어 읽기 및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학습자들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실험반의 경우 사전-사후 읽기능력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사전 평균점수 11.14에서 사후 평균점수 12.35로 사후 평균점수가 1.21점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유의확률 .004로 유의수준 .05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가 학생들의 영어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어 전반적인 글의 이해력을 향상시켜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글을 읽고 선다형 문제를 푸는 시험위주의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학습한데서 오는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즉 글을 읽어가면서 중심단어 찾아 쓰기, 핵심단어를 활용한 순서도 만들기,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자기 글쓰기 등의 방법은 집중력 있는 읽기활동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는 학습태도를 갖추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기사내용을 읽기 전에 시행한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을 보면서 brain-storming기법으로 기사와 연관된 단어 쓰기, 자기 경험을 말하고 함께 문장으로 써보기, 기사내용 추측하여 한 문장으로 쓰기 등과 같은 사전 쓰기활동은 기사를 더욱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는 학습자들의 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실험반의 경우 사전-사후 쓰기능력 평가에서 사전 평균점수 10.43에서 사후 평균점수 12.21로 사후 평균점수가 1.78점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고, 유의확률 .000 로 유의수준 .05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쓰기 평가의 각 항목별 향상에 있어서도 내용 0.57, 구성 0.58, 문법 0.27, 어휘 0.65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t-검정결과에서도 유의확률이 내용 .001, 구성 .028, 문법 .022, 어휘 .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험 전 학생들은 쓰기 기회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흥미를 끄는 영자신문의 다양한 기사 읽기와 중심단어를 활용한 글쓰기에서 시작하여 문장단위로 확장해가며 점차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면서 읽기능력 향상과 더불어 쓰기능력도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험수업 후반기부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을 읽기 전에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을 보며 먼저 써보는 활동이 가능했으며 이는 읽기학습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쓰기평가에서 어휘영역의 향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과 구성에서도 상당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영자신문의 다양한 기사 읽기를 통해 어

휘를 습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지식의 폭이 넓어져 내용이해와 글의 구성에 익숙해진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문법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읽기와 쓰기활동과정에서 어휘 및 내용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문법적 요소를 학습할 시간이 부족한 결과이다. 세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면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므로 교사들은 쓰기 지도를 함에 있어서 문법적인 요소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읽기 및 쓰기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 r 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사후읽기와 사후쓰기의 상관관계인 r 의 값은 .924로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 데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지가 향상되었다. 다양한 신문기사 읽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기사를 읽고 글을 쓰게 될 때 배경지식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은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 성향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한 읽기 중심 및 교사중심의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은 주로 수업을 듣는 일방적인 수동적 학습을 해왔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주제 선택에서 학습활동에 이르기까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학습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영자신문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읽기자료로 수업이 진행될수록 영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영어 학습 전반에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자신감은 영어 학습 전반에 대한 학습욕구를 자극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의지를 고취시켰다.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학생들은 앞으로도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을 하겠다는 긍정적 의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 흥미로운 읽기자료를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욕구를 고취시키고 스스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문자영어 의사소통 능력인 읽기와 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학상(1999)의 읽기와 쓰기의 통합모형을 토대로 영자신문 활용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업활동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 쓰기 후 읽기활동

글을 읽기 전 제목이나, 삽화, 사진 및 글의 앞부분을 보고 어떤 내용이 전개 될지 예측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쓰는 활동을 한 후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쓰기활동은 읽기학습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으며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 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활동을 할 수 있다.

- (1) 기사의 삽화나 사진을 보고 미리 글의 내용을 추측하고 관련된 질문을 작성한다.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고 질문을 쓰는 활동은 읽을 기사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기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하게 되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2) 기사와 관련된 알고 있는 사항이나 자신의 경험을 word-map으로 작성한다. 관련된 어휘를 미리 word-map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된 배경지식 및 경험을 끌어내는 워밍업 과정을 통해 읽기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3) 기사를 읽어 가면서 쓰기활동에서 추측한 내용과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며 읽는다. 기사의 내용을 예측하고 읽게 되면 글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기사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 (4) 기사의 내용과 자신의 일을 연계하여 글을 쓴다. 미리 학습한 단어와 기사 속의 구문을 활용하면 기사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쉽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2) 쓰면서 읽기활동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각 단락별 핵심어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각 단락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EFL 상황의 중학교 학생 대상 영어수업에서는 기사를 읽어가면서 쓰기활동을 가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 (1) 기사를 읽으면서 단락 별 핵심 단어에 표시를 한다. 핵심 단어를 찾으려는 목표가 주어지면 기사를 읽을 때 집중하게 되고 앞-뒤 문맥에 초점을 두게 되어 이해력이 높아진다.
- (2) 핵심 단어로 기사 흐름을 순서대로 그린다. 각 단락별 핵심 단어들로 순서

도를 그려봄으로써 기사 내용의 흐름과 구성을 파악하게 된다. 읽기를 통해 습득하게 된 글의 흐름과 구성은 글을 쓸 때도 짜임새를 탄탄하게 해 줄 수 있다.

3) 요약한 기사 글에 빈 칸을 채워 글을 완성한다.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단어에 빈 칸을 만든 학습지로 글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기사내용 이해정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학습의 기회가 된다.

(4) 핵심 단어를 활용하여 짧은 이야기를 쓴다. 핵심 단어들 중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기에 용이한 5개 정도의 단어를 선택하여, 이를 활용한 짧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기사 속 문장을 참고하여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3) 읽기 후 쓰기활동

정확한 읽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쓰기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읽기 내용을 쓰기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1) 기사를 읽고 새로운 어휘 및 구문을 익힌다. 새롭게 접하는 어휘와 구문에 표시하며 기사를 읽은 후, 표시된 단어 및 구문을 함께 학습한 후 다시 기사를 읽는다.
- (2) 기사의 내용 전개에 따른 질문에 답한다. 미리 준비된 학습지의 질문에 답을 쓰면서 기사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쓰기학습도 이루어진다.
- (3) 질문에 대한 답을 활용하여 기사의 줄거리를 쓴다. 준비단계 없이 기사의 줄거리를 쓰도록 할 때 문장구조나 글의 구성에 익숙하지 않아 글쓰기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육하원칙에 따른 계획된 질문에 대한 답을 활용하면 줄거리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4) 기사에 대한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쓴다. 기사를 정확히 읽고 줄거리를 쓴 다음 이를 토대로 관련된 어휘, 문장구조 및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쓰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의 일환으로 영자신문을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영어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들의 영어 학습태도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읽기자료로 영자신문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의 과정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면지역에 소재한 J중학교 3학년 2개 학급(56명)으로 각각 실험반(28명)과 비교반(28명)으로 설정했다. 실험수업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이며 총 16차시에 걸쳐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를 실시하였다. 1차시와 2차시에는 학습자들이 영자신문의 구성과 전체적인 흐름에 익숙하도록 실제 영자신문을 투입하였고, 다음 차시부터는 영어 학습 자료 선정기준 및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기사를 제공하였으며 학습자들은 각각의 기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읽기활동과 쓰기활동을 전개하였다. 실험수업 전, 후 2차례에 걸쳐 읽기평가, 쓰기평가 및 1:1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1.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인 읽기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 시키는가?
2.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인 쓰기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가?
3.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는 좀 더 체계적인 영어읽기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읽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전, 후의 점수를 통하여 읽기능력 향상정도를 살펴본 결과 실험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비교반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둘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는 학습자들이 영어쓰기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높여 쓰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쓰기의 총체적 평가에서도 실험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비교반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실험반의 쓰기평가에서 내용, 구성, 문법, 어휘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어휘영역의 향상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문법영역에서 다소 낮은 향상을 보였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에서 쓰기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익숙해진데서 오는 결과이며, 또한 영자신문을 읽으면서 어휘와 내용적인 요소 등 읽기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문법적 요소를 많이 다루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셋째,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성향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은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학습의지 등을 높여주어 영어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모든 설문문항 중에서 제일 낮은 평균값을 보였던 영어 쓰기에 대한 사전 자신감이 사후에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수업 안에서 쓰기활동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많이 부여하면서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자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흥미로운 읽기자료를 선정하고, 통합적인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욕구를 고취시키며 스스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이 학습자의 문자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인 읽기와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학습을 위한 심도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매 차시마다 주어진 45분 수업시간 동안에 선정된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읽기학습과 쓰기학습을 병행하는 두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이 하나의 기사를 읽고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쓰기활동을 하기에 45분은 부족하였다. 충분한 읽기학습을 통하여 기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관련된 주변지식을 습득한 다음 쓰기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더 짜임새 있고 풍부한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활동을 한 차시 안에 끝내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학습자들의 이해정도를 살피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자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를 하면서 지도의 용이성을 위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문기사들 중 매 차시 하나씩만을 선정하여 읽기와 쓰기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하여 개인별, 혹은 그룹별로 선호하는 기사를 각각 다르게 선정하여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와 학생 모두가 쓰기에 대한 개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읍면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이전 쓰기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기사 속 핵심 동사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중심 내용 찾아 쓰기 등 문장 수준 쓰기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강조되고 평가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서술형 평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서술형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고등지식을 포함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또한 쓰기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짜임새 있게 표현하여 상대에게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영어쓰기지도에 있어서도 문장단위 쓰기에서 벗어나 단락중심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영자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 관점에서 그 범위가 문자언어에 제한되었지만, 영자신문의 다양한 기사들은 듣거나 말하기 자료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영자신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음성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언어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앞으로 영자신문을 활용한 음성언어의 통합지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금진. (2005). 읽기 자료를 활용한 고등학생 영어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외국어[영어]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75호.
- 김진선. (2003).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 효과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상. (1999).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배. (2003). 영자신문을 고등학교 영어 학습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영이어문학연구, 19(2), 43-59
- 김혜정. (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 141-180.
- 김효정. (2007). 장르별 영어 읽기 쓰기 통합 모델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연화. (2007). 영자신문을 이용한 요약하기 활동이 읽기 능력 및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1학년 상위구룹 학습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혜. (2007).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쓰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아. (2010). 영자신문을 활용한 초등학교 수업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유미. (2010). 영자신문을 활용한 유도 작문이 영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중학교 학습자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덕기. (2005). 영자신문 활용 초등영어 읽기,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 16, 35-54.
- 민예구. (2001). 어린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초등 영어 읽기 지도 : 지도 효과 및

- 활용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두본. (1997). 영어교재론개관: 이론과 개발. 서울한신문화사.
- 손화자. (2006). 독해전략을 활용한 영자신문 읽기 지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지. (2010). 어린이 영자신문을 활용한 초등영어 읽기-쓰기 연계지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태. (1994). 국어교육의 길잡이. 서울: 한신문화사.
- 이선화. (2007). 영자 신문의 포토뉴스를 활용한 과제해결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희. (2012). 영미 청소년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독해일지 작성 활동이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자, 손화자. (2007).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전략 활용 영자신문 읽기지도,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2(1), 1-12.
- 임성호. (2005). 쓰기능력 신장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지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자. (2011). 리딩 저널 쓰기가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및 쓰기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희. (1999). 한국 NIE 성공전략. 대구: 도서출판 대일.
- 최상희. (2003).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영희.(2011). Dicto-Comp 기법을 활용한 영어쓰기에 관한 학습효과-주니어 인터넷 영자신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진숙 외 12인. (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철우 외 3인. (2001). 과정중심 독서지도. (주)교학사.
- 허병두. (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Calkins. L. (1983). *Lessons from a child: On the reading and learning of writing*. NH: Heinermann
- Ferris. D., & Hedgcock, J. S. (1998). *Teaching ESL composition: Purpose, process, and practic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Gunning, T. G. (2005). *Creating literacy instruction for all students*. Boston: Allyn & Bacon.
- Kenneth G., & Goodman, Y. (1983). Reading-writing relationship: Pragmatic function. *Language Arts*, 60, 590-599.
- Rathbone, R. R. (1972). *Communicating teaching information: Reading*. MA: Addison - Welsely Publishing Company.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2n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nderson, P. (2004). *Using newspapers in th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nahan, T., & Lomax, R. (1986).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oretical models of the reading-writing relationship.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116-23.
- Tierney, R. J., & Pearson, P. D. (1983). Toward a composing model of reading. *Language Arts*, 60, 568-580.

<ABSTRACT>

A Study of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Middle School English through English Newspapers

Oh, Kyoung-soon

English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We live in today's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nd use more and more written languag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Internet, E-mail, SNS and so on. We need to improve written language communication skills like reading and writing. I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ntegrated instruction of reading and writing through English newspapers affects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how it develops affective domains.

Fifty-six students (two groups of 28, an experimental and a comparative class) of J Middle School in Jeju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class had 16 lessons of integrated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through English newspapers. These classes were conducted in three ways: Reading Activities After Writing, Reading Activities While Writing, and Writing Activities After Reading. The students were also completed take a reading and a writing test and answered a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experimental classes. These results were analyzed for significance.

* This thesis wa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3.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irst,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learning through newspapers had a great effect on the average reading scores in the experimental class, show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 reading test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 reading tests of the comparative cla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students' average writing scores in the experimental class were also significantly high after experimental classes in both holistic and analytical evaluations.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learning especially affected vocabulary scores in the four analytical items: content, organization, grammar, and vocabulary. This significance seemingly came from the students' familiarity to the vocabulary while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learning through newspapers. Third,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learning through newspapers brought positive changes on the students' affective attitudes toward English learning: interest, confidence, and learning motivation in English. Thus, these changes increased their confidence for writing, which had been the lowest in the pre-questionnaire. This result was attributed to the students having more writing opportunities and less pressure while writing.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eachers should select reading material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ages and English proficiency levels and that attract their interests. Teachers should also produce various reading and writing activities to inspire the students with motivat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Thus, both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think widely about writing concepts. The purpose of writing is to express opinions and thoughts in well-organized sentences and to completely convey intentions, not listing fragments of knowledge. Therefore, teachers should extend writing activities into paragraphs, not writing just individual sentences when they teach how to write.

<부록 1> 사전 설문지

< 설 문 지 >

본 설문지는 영어 읽기와 쓰기, 그리고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영어읽기, 쓰기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므로 사실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에 영어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					
2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3	평소 하루에 영어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전혀 않음	0-0.5 시간	0.5-1 시간	1-2 시간	2시간 이상
4	영어공부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교과서	자습서	문제지	독해 교재	어휘 교재
5	영어 읽기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					
6	영어 읽기에 자신감이 있다.					
7	영어 읽기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영어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휘	어순	지문 길이	읽기훈 련부족	시간 제한
10	영어 쓰기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					
11	영어쓰기에 자신감이 있다.					
12	영어 쓰기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영어쓰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휘	어순	문법	내용	구성
15	영자신문을 통해 학습해본 경험이 있다.					
16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영자신문을 활용해 학습한다면, 어느 영역을 활용해 학습하고 싶습니까?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광고	work book

<부록 2> 사후 설문지

< 설 문 지 >

본 설문지는 영어 읽기와 쓰기, 그리고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영어읽기, 쓰기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므로 사실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 읽기에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2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 읽기에 자신감이 높아졌다.					
3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 읽기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의욕이 생겼다.					
4	영자신문의 다양한 읽기자료가 영어읽기에 도움이 되었다.					
5	영자신문의 기사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휘	어순	지문 길이	읽기훈련 부족	시간 제한
6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 쓰기에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7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쓰기에 자신감이 높아졌다.					
8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 후 영어 쓰기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의욕이 생겼다.					
9	영자신문의 다양한 기사읽기가 영어 쓰기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0	영자신문의 기사내용을 기초로 쓰기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장 느끼는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어휘	어순	문법	내용	구성
11	영자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교과서 수업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12	영자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13	영자신문에서 어느 영역이 읽기가 쉬웠습니까?	사회	문화	스포츠/연예	광고	work book
14	영자신문에서 어느 영역이 읽기가 어려웠습니까?	사회	문화	스포츠/연예	광고	work book
15	앞으로 영자신문을 가지고 영어 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록 3> 학생활동 학습지 예시(1차시)

English News Paper Education - 1

Favorite News



Group: 1 Members: _____

Title	Wonder Girls Makes Their Comeback 
New Words	prior 우선의 prior to ~에 앞서 release 발표하다 teaser 예고 광고 matching 어울리는 official 공식적인 unique 독특한 mature 심숙한 exclusive 단독의
Introduction of	<p>On June 3, Wonder Girls made their comeback with a new mini album. A teaser photo of the members was released through their official homepage. Their concept is matching colorful make-up with their unique hairstyles and clothing. So they looked more mature and famous in the picture. The mini album contains fun dance songs you can enjoy during the summer. Like this!</p> <div data-bbox="263 1232 1396 1792"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color: green; text-decoration: underline;">Wonder Girls Makes Their Comeback</h1>  </div>
Review	<p>I knew about Wonder Girls's concept about this album. I thought Wonder Girls are ready to the famous musicians all of the world!</p>

 **Special Focus** THE KIDS TIMES
YOUR WINDOW TO THE WORLD

Time to Enjoy Watermelon! (06-07-2012)

Summer is a fun season, but the hot weather **often** makes us feel tired. So it is important to drink a lot of water during the hot summer. Eating watermelon is **another** way to **stay hydrated** in this hot season.



It is 92 percent water. The summer fruit is delicious and **nutritious**! In fact, watermelon **delivers** more **nutrients** per calorie than many other fruits.



Watermelon is a wonderful **health food** because it doesn't contain any fat or **cholesterol**. Also, it is high in **fiber**, vitamins A, and C. It is a good **source** of **potassium**, too. Vitamin C helps your **immune system** and vitamin A makes your eyes strong. So, enjoying watermelon can help you **fight against** a lot of **diseases**, including **cancer**, **diabetes**, and **asthma**.

Watermelon is grown in over 96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t comes in many colors, shapes, and sizes. Over 1,200 varieties of watermelon are grown worldwide. There are more than 50 varieties in the U.S. **alone**.

The **rind** of watermelon is thick and green, but it can look black, too. Some watermelons have **spots** **instead of stripes**. On the inside, it can be red, pink, or yellow! Every part of a watermelon is **edible**, even the **seeds** and rinds.

There are many ways to enjoy the delicious fruit. To enjoy watermelon in a fun way, you can use a spoon to scoop it up in balls. You can also **add** it to all kinds of **recipes** such as fruit salads and fruit kebabs. You can drink it as juice, too. In Israel and Egypt, the sweet taste of watermelon is often paired with the **salty taste** of **feta cheese**. Think about more fun **ways** to enjoy watermelon!



<부록 5> 학습지 예시(3차시)

English News Paper Education - 3

Chosen News



Group: _____ Members: _____

Title	
Warm up- Writing	<p>1. About the pictures in the article.</p> <p>2. What are the features of Watermelon?</p>
New Words	
Let's grasp- Reading	<p>1. Find out the main word each paragraph.</p> <div data-bbox="1066 1115 1329 1435" data-label="Image"> </div> <p>2. True or False:</p> <p>① Eating watermelon is one of good ways to keep hydrated in hot season. ()</p> <p>② Watermelon is more than 90% water. ()</p> <p>③ Watermelon is more delicious but less nutritious than many other fruits. ()</p> <p>④ Watermelon is a healthy food: It has high fiber, vitamin C but doesn't any fat. ()</p> <p>⑤ All watermelons have stripes on the rind. ()</p>
Review	


<부록 6> 학생활동 학습지 예시(3차시)

English News Paper Education - 3

Chosen News



Group: 5 Members: _____

Title	Time to Enjoy Watermelon
Warm up- Writing	<p>1. About the pictures in the artic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ee boys are eating watermelon deliciously. • There is a hut in the watermelon field. • One family have good time eating watermelon. <p>2. What are the features of Watermel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melon has much water. • We can eat watermelon in summer. • Water melon is round and striped.
New Words	<p>hydrated : 수분이 있는 deliver : 배달하다 Contain : 포함하다 potassium : 칼륨 fiber : 섬유질 disease : 병 include : 포함하다 Cancer : 암 diabetes : 당뇨병 asthma : 천식 edible : 먹을 수 있는 rind : 껍질</p>
Let's grasp- Reading	<p>1. Find out the main word each paragraph.</p> <p>hydrated ⇒ delicious and nutritious ⇒ fight against disease ⇒ Various kinds ⇒ ways to enjoy water melon</p>  <p>2. True or Fals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ating watermelon is one of good ways to keep hydrated in hot season. (T) ② Watermelon is more than 90% water. (T) ③ Watermelon is more delicious but less nutritious than many other fruits. (X) F ④ Watermelon is a healthy food: It has high fiber, vitamin C but doesn't any fat. (T) ⑤ All watermelons have stripes on the rind. (F)
Review	<p>We got to know a lot about watermelon. It is very healthy food and we don't need to worry about getting weight. I want to eat watermelon.</p>

<부록 7> 학생활동 학습지 예시(8차시)

English News Paper Education - 8

Chosen News



Group: 2 Members:

Title	What is the Happiest Job?
Warm-up	1. What are the jobs in the picture? Police officer, fire fighter, doctor, nurse TV star 2.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teacher.
New Words	entertainer : 연예인 . diplomat : 외교관 stable : 안정적인 . aptitude : 적성
Reading & writing	1. Fill the blank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You will start working <u>after</u> graduating college. That means you will spend a lot of time <u>at work</u> .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have a job that makes you <u>happy</u> . 2. Look for the main words and draw a word sequence diagram.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3. Let's read the article carefully again according to the word sequence diagram
Review	- What are things to consider when choosing a job? They are aptitude, ability, vision and money.

<부록 8> 학생활동 학습지 예시(12차시)

English News Paper Education - 12

Chosen News



Group: 3 Members: _____

Title	Red Apple! Yellow Banana!
New Words	argument : 다툼, 논쟁 private : 개인적인 be grounded : 단속이 금지된 frightened : 겁먹은 annoyed : 짜증난 perplexed : 당황한
Reading & Grasping	Verb Exercise 1. Let's write the following verbs in past tense. 1) get - <u>got</u> 2) feel - <u>felt</u> ① I <u>got</u> into an argument with my friend yesterday. ② I shouted at my friend, and I <u>felt</u> very bad. 2. Answer the following. ① Red Apple! Yellow Banana This means that <u>I am angry with you</u> 상대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 격앙된 말을 했어 → 싸움을 피할 수 있다 ② Do you think it works well? <u>I don't think so.</u> I think <u>I get angrier when I hear that word</u> A good book is same with a friend who is good listen to
Review-Writing	1. Use the verbs above to make a sentence. <u>I felt sorry when my dog was sick.</u> <u>I get into trouble with my sister sometimes.</u> 2. Write your anger experience and the solution. <u>I lent my pencil to my friend. But she didn't give back to me. she lost it. I got the pencil from my best friend. I got angry at her. she bought a new pencil. I felt sorry. bought</u>

<부록 9> 사전 쓰기평가 결과 예시

♥ 다음을 주제로 자유롭게 제목을 정하고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쓰세요.
(시간:40분, 분량: 200단어 내외)

The Subject : What do you do on weekends?

Grade (3) Class (3) Name ()

The Title: My nature
I go to school every day. But on weekends I don't
go to school and I can do anything I want to do.
On weekends I wake up 10 o'clock and I stretch. Then
go on a walk with a dog. I have lunch with my
family together and I play computer games when
I feel bored. After dinner I do a little bit of
homework and then watch my favorite programs like
Running Man and Infinite Challenges. When I am tired,
I go to bed. These activities are my nature on
weekends. I like weekends because I can do anything
which I like to do

<부록 10> 사후 쓰기평가 결과 예시

♥ 다음을 주제로 자유롭게 제목을 정하고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쓰세요.
(제한시간:40분, 분량: 200단어 내외)

The Subject :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Grade (3) Class (3) Name ()

The Title: A good diplomat is me!
When I was young, I thought doctor was very honorable job. So, I wanted to be a doctor. I read many books, watched medical drama and studied very hard to be a doctor. One day, I saw the news about Ban Gi-moon. He is a very honorable person. We, Koreans, respect him. That day I changed my dream. I decided to be a diplomat! He often appears on TV. So I watched the news about him, read newspapers about him, searched about him. And I studied foreign languages hard. It is not easy to study hard and memorize foreign words. But I want to be the most honorable diplomat! I want to be a successful diplomat! I keep on studying hard, learn foreign languages and do volunteer work to be like Ban Gi-moon. My family and my friends are my energy. I won't give up! I will try to be a great diplomat like Ban Gi-moon.

